실향민 가정 연탄 배달 봉사

강원 속초시협의회가 3월 8일
아바이마을의 실향민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기부한 연탄 2,500장과
자문위원들이 지원한 500장을
함께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달의 평통 한 컷
#연탄 배달 봉사
#속초시협의회
#실향민
#기부

『평화통일』을 멋지게 장식할
'평통 한 컷'을 찾습니다.
SNS 채널에 #평통 한 컷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평화통일 2025 Vol.214 3+4월호 3·1운동과 사회통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B551157-000005-06 ISSN 2765-6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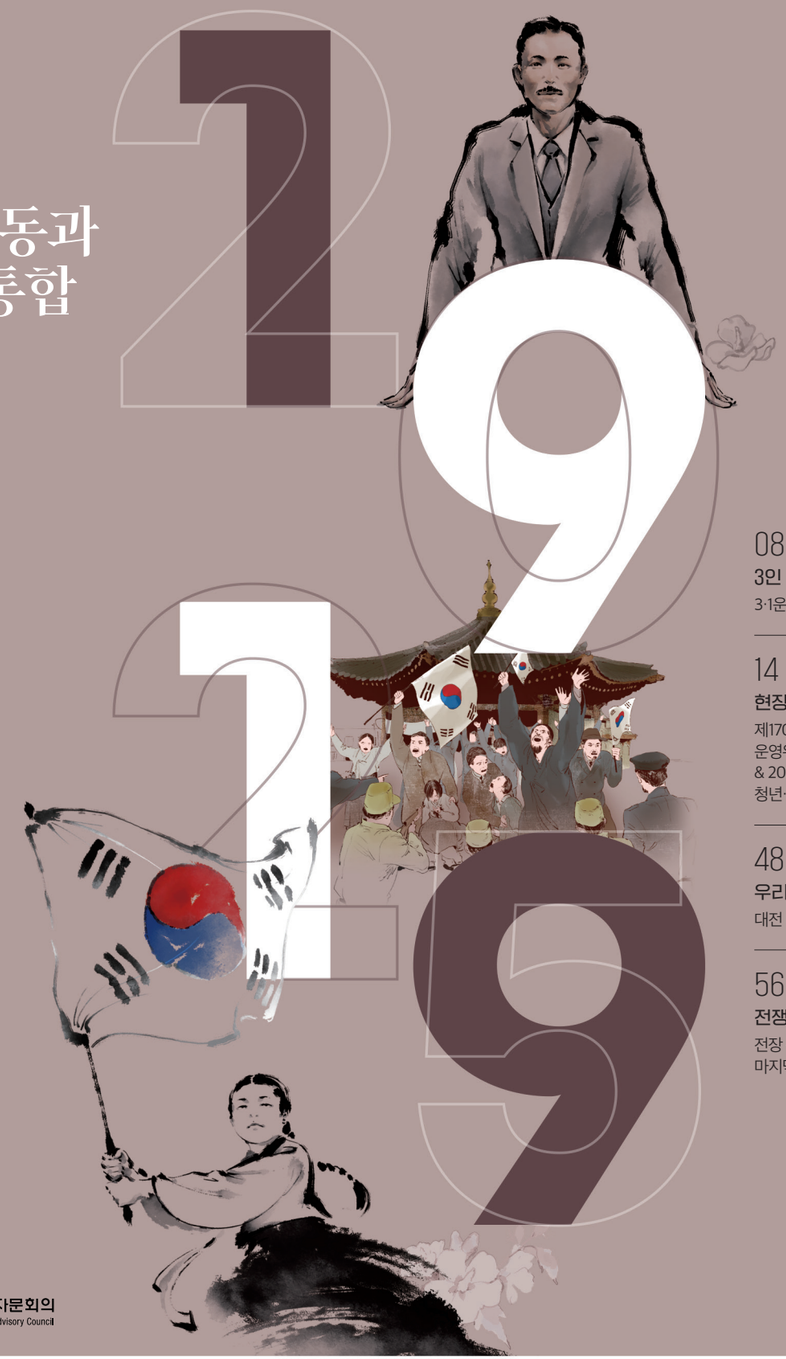
www.puac.go.kr

평화통일

2025 Vol.214 3+4월호

스페셜 테마

3·1운동과 사회통합



08
3인 좌담
3·1운동과 사회통합

14
현장 포커스 1
제17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5 상반기
청년·여성운영위원회 개최

48
우리동네 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

56
전쟁의 기억, 평화의 미래
전장 속 약속을 지킨 황규만 장군의
마지막 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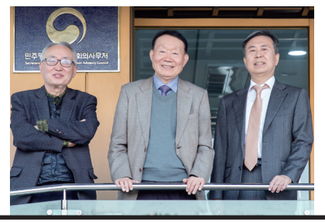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ONTENTS

2025. 3+4 | vol. 214

스페셜

4



8

18

40

60

테마

리포트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역사적 공간 '장충단공원'

3인 좌담: 통합의 길을 묻다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미래 비전 새롭게 만들어야"

포커스 & 이슈

14 **현장 포커스 1**
제17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5 상반기 청년·여성운영위원회 개최

18 **현장 포커스 2**
2025년 제1~2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22 **현장 포커스 3**
AI·통일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24 **특집**
박주화 | 2025년 20대가
1981년 20대에게 던지는 질문

28 **국제**
정구연 | 미국 우선주의가 초래할
글로벌 혼돈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32 **북한**
이해정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허와 실

36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전영선 | 소통과 불통 사이에 있는
남북 언어의 차이

평통 현장

40 **평화통일 현장 1**
선양협의회
"무오독립선언의 뜻,
선양에서 후손들과 함께하다"

42 **평화통일 현장 2**
경북 영주시협의회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44 **평화통일 현장 3**
제주지역회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통일 염원하는 남북이 하나로!

46 **세계 속 평통**
일본 동부협의회
한일 간 평화와 소통의 가교 역할

48 **우리동네 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
"함께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52 **평통 인사이드**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파트너

54 **청년기자가 간다**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 개최

문화 & 피플

56 **전쟁의 기억, 평화의 미래**
전장 속 약속을 지킨 황규만 장군의
마지막 소원

60 **희망의 발걸음 1**
안성민 대전 모란봉교회 전도사
화마가 할퀴고 간 '절망'에서 탈북으로 찾은
'희망' 한 걸음

62 **희망의 발걸음 2**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젠 '평범' 속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64 **트렌드로 보는 북한**
커피로 변하는 북한, 부유층 문화를 넘어선
변화의 징후

66 **평화통일 명소**
'슴슴'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평양냉면의 남한 정착기

68 **영화 속 한반도 이야기**
하얼빈에서 피어난 혁명: 안중근과 동지들의 외침

뉴스 & 소식

70 **평화통일 소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설맞이 평양통일떡국 나눔 행사 외

76 **평화통일 라운지**
이달의 평통 한 컷
평통 우체통

78 **칼럼**
박영자 | 남한보다 국력이 약한 북한, 어떻게 남북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가?

79 **민주평통 채널**

표지 이야기

3·1운동은 다양한 계층과 지역, 이념을
하나로 묶어내며 민족 단합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은 사회통합의 가치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통권 214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2-B551157-000005-06 **ISSN** 2765-6659 **발행일** 2025년 3월 14일
발행인 태영호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미디어소통과** 02-2250-2265
기획편집위원 김영수·김정·김한권·박영자·이수석·이해정·장철운·전영선·조정현 **제작** 경성문화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에 게재된 필자의 견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puac.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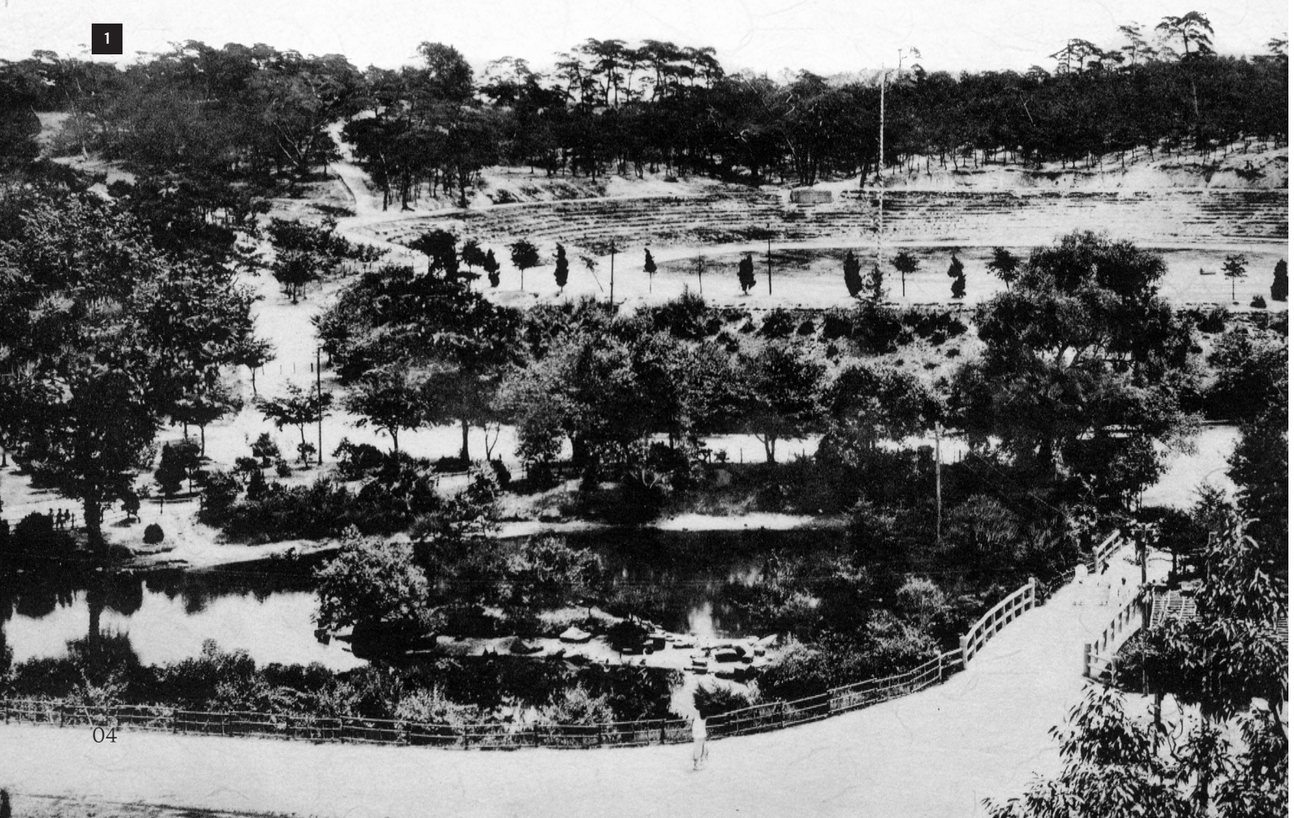
모바일 오디오북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역사적 공간 '장충단공원'

평화통일을 향한 정신…민주평통이 이어가다

장충단공원은 조선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진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선말 충신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장충단에서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온 이 공원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반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공원 내 기념물들은 이곳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역사적 성찰과 교훈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증명한다. 장충단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이곳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본다.

글. **편집실** 사진. **고인순**



"난리에 뛰어들어 나라를 위해 죽은 자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내 보답하는 것은
귀신을 위안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군사들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갑오년(1894년) 이후로 전사한 사졸(士卒)들에게
미처 제사를 지내주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생각건대, 원한 맺힌
혼령들이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없어 슬프게
통곡하는 소리가 구천에 떠돌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짐(朕)의 가슴이 아프다. 제사 지내는 일을
원수부로 하여금 품처(禀處)하게 하라."

-〈고종실록〉 40권

장충단의 시작: 조선 최초의 현충원

1900년에 고종 황제는 갑오년(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을사년(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순국한 대신과 장졸을 기리기 위한 '장충단 건립을 위한 소칙'을 원수부(元帥府, 국방부)에 내린다. 원수부는 1900년 11월 10일 현재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있던 어영청 분영인 남소영(南小營) 터에 제단(祭壇)과 건물을 짓고 '장충단(奬忠壇)'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운다. 당시 장충단은 15칸의 건물과 3층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충단(奬忠壇)이라는 이름은 '충성스런 장수를 위한 제단'이란 뜻인데, 비의 정면에는 순종이 황태자였을 때 쓴 '장충단(奬忠壇)'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당시 육군부장이었던 민영환(1861~1905)이 지은 143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다음 해인 1901년 장충단은 임오군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 당시 순국한 신하들의 신위를 함께 모시면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충신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제사는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지냈는데, 군기·군악대가 동원되고 각부 대신과 군부대신 이하 각 위관(尉官)과 병졸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을 기리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장충단공원의 명칭은 '장충단(奬忠壇)'으로서 이곳은 사실 고종황제가 세운 대한제국 최초의 국립현충원이었다.

'추모공간'에서 '위락(慰樂)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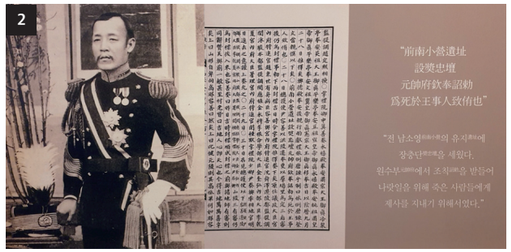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순국과 저항의 상징인 장충단 제사를 폐지한다. 그리고 물이 맑고 경치가 좋았던 이 일대를 1919년 9월 '경성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원으로 변모시킨다. 벚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고 산책로, 운동장, 잔디밭, 공동화장실 등을 만들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자 서울 시민들의 산책지, 각종 사회단체의 운동회 및 야유회가 개최되는 곳, 청소년들의 야외 체력단련 장소 등으로 이용하게 한다.

당시 장충단공원의 영역은 지금의 국립극장, 반얀트리 클럽, 한국자유총연맹, 장충체육관을 아우르는 것으로 1940년 기록에 의하면 공원 전체 면적은 무려 41만 8천 평이었다고 한다. 특히, 장충단공원에 운동장, 양궁장, 자전거 경기장, 스모 경기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고 일본정신박람회를 개최해 조선인을 신민화(臣民化)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후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정치 유세 현장으로도 많이 쓰였다.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당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벌였던 유세대결이 유명하기도 하다. 현재 이곳에서 대한제국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장충단비'뿐이다. 1969년에 지금의 수표교 서편으로 옮긴 '장충단비'는 공원 한구석에 쓸쓸히 놓여 있다.

1 1923년 장충단공원의 전경사진으로 뒤쪽에 보이는 원형 경기장은 장충단공원 운동장이며 지금의 장충체육관 자리에 해당한다. ⓒ우리역사넷

2 장충단 비문을 쓴 민영환,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장충단 건립 취지 ⓒ소셜포커스



자유와 독립을 향한 굳은 신념의 발자취…애국정신의 성지

1970년대 이후 장충단의 원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장충단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지면서 호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장충단공원에서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이준 열사와 이한응 열사의 동상을 차례대로 만날 수 있다.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는 3·1운동 이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평화회의에 전국의 유림들이 일제의 한국 주권 찬탈 과정을 폭로하고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세계만방에 알렸던 일을 기념하여 만든 조형물로, 1972년 10월 10일에 세워졌다. 이준 열사(1859~1907)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고종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통분하여 현지에서 순국했다. 1964년에 건립된 이준 열사의 동상은 오른손을 주머니에 깊게 찔러넣고 왼손에는 두루마기 문서를 하나 든 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

3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장충단공원에서 약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유세대결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우리역사넷

4 비석의 앞면 글씨는 당시 왕세자였던 순종이, 뒷면의 비문은 원수부 회계국 총장이었던 민영환(1861~1905년)이 지었다.

5 3·1독립운동 기념탑 건너편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이한응 선생(1874~1905)은 용인 출신으로 일찍이 영어와 신학문을 배우고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05년 한일협약과 영일동맹 등으로 한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절박함에 30대의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자결 순직했다. 1960년에 건립된 기념비는 높이 3m 규모로 거북 형상의 받침돌 위에 비석이 올려져 있는 모양이다.

3개 기념물을 지나 동국대 후문으로 가는 돌계단 위에는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비가 있다. 외솔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모진 고초를 당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 운동의 대표주자다. 1937년에는 우리말본 출판을 통해 국어 문법 체계를 최초로 정립하기도 했다. 이 기념비는 선생의 사후 1년이 지난 1971년 5월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해 세워졌다.

이어 장충단공원에서 국립극장 방향으로 가면 유관순 열사 동상과 3·1독립운동기념탑을 마주하게 된다. 유관순 열사 동상은 1970년 남대문 앞 녹지대에 건립했던 것을 1971년 현재(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01 남산공원 내) 위치로 이전하면서 장충단공원을 애국정신의 성지로 만들었다. 동상은 두 팔을 하늘 높이 뻗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상 기둥엔 남녀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거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밧줄에 묶인 모습 등 6개의 부조(浮彫)로 그려졌다.

국립극장 아래 작은 공원에 세워져 있는 3·1운동기념탑은 199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50주년 기념일에 착공하여 3·1운동 80주년 기념일인 1999년 3월 1일 준공했다. 탑의 높이는 19m 19cm로, 3·1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을 의미한다. 기념탑에는 하늘, 땅, 사람(天地人)과 천도교, 기독교, 불교 연합을 상징하는 3개의 기둥 축을 세워 하늘 높이 비상하는 삼태극(三太極, 우주)을 원구 형태로 구성하고, 제일 꼭대기에는 동서남북을 조형화해 우주로 힘차게 비상하는 민족을 담았다. 탑의 앞면에는 3·1독립선언서 원문이 새겨져 있고, 탑의 뒷면에는 3·1독립운동의 모습을 부조로 새겨 놓았다. 좌측에는 민족수난과 투쟁을 의미하는 조각상을, 우측에는 평화와 민족의 영광을 의미하는 상을 세웠다. 탑의 뒷면 부조에는 일제의 총 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항거 장면을 담았다.

한반도 평화통일, 민주평통이 이어가다

그리고 3·1독립운동기념탑 건너편에는 '평화통일비'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다. 현행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자문회의'가 전신으로 그동안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범민족적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 청사는 1981년 6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축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 민주평통 사무처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평화통일비는 민주평통 사무처로 올라가는 길목인 '평화통일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에 세워졌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장충동에 민주평통이 사무처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독립운동 정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이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독립운동이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일 공공외교를 수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과거 3·1운동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가 독립으로 이어졌듯이, 민주평통도 국민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결국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은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 아래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평통은 그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1운동으로 배우는 통합의 지혜 :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미래 비전 새롭게 만들어야”

‘3·1운동과 사회통합’에 관한 3인 좌담

2025년,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3·1운동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과 그 성과를 되짚어보고, 당시 민족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요인들을 알아봅니다.
또한, 광복 80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대, 이념,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광복과 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리. **민주평통** 사진. **박창수** 동영상. **최의인**

•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

진행 **박명규**(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대담 **박종철**(대전대학교 객원교수)
박환(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3·1운동, 근대 독립국가를 향한 불굴의 외침

Q1.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널리 알린 3·1운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명규 광복 8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일제 식민지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경제력과 문화력, 위상을 갖추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1 운동 당시 전 국민이 굳건한 단합과 열정으로 일군 독립되고 자유로운 자기 국가 건설에서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3·1운동이 지닌 중대한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은 이후 각종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하는 큰 흐름 속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3·1운동은 한반도뿐 아니라 재외 동포 사회가 대대적으로 동참했으며, 여성이 최전선에 나와 만세를 불러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였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직접적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다는 데 있으나, 그 차원을 넘어 자유와 정의, 평등 등을 구현하고, 광복 이후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철 우리 민족은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대응해 주권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근대적 민족의식과 주체성을 발현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의 핵심은 기존 왕조 체제에서 민주공화제로의 전환입니다. 당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조선 독립과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도 공화주의를 기초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입니다.
현 시대의 과제이자 시사점은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어갈지의 문제입니다.

갈등을 긍정 에너지로 승화하는 해법은 공감과 소통

Q2. 당시 3·1운동이 이념과 세대,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차이를 넘어 하나로 결집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환 구한말 의병 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수많은 애국지사가 청년층에게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당시 학생에 불과했던 세대가 성장하여 3·1운동의 주역으로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대상으로 벌어진 수많은 수탈과 탄압도 이들을 결집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물론 당시엔 교통이나 통신 등이 발달하지 않아 전 국민이 동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이 강원 지역에선 무려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한계를 넘어 긴밀한 결속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립운동을 이끈 의지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철 첫째로 신분과 계층, 성별을 떠나 근대적 민주공화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민간 조직과 종교 단체 등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을 만들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작동한 것이 숨은 밑바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명규 우리 사회 내부의 목표에 관한 공감과 노력, 이러한 감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역량이 모여 통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더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기독교, 불교, 천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 조직들, 국내외 학생, 지식인 등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 연대하고 결합할 수 있게 이끈 리더의 역할에 주목해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되짚는 것은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사회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할 때 발전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더 성숙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사회는 세대, 지역, 이념, 성별 간의 갈등과 통일 문제에서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정 기구와 민간의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SNS와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Q3.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국내외 정세 속에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과 요인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박종철 어느 국가든 사회적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대, 지역, 이념, 성별 등으로 인해 대립하는 상황인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를 보면,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전 세대가 통일에 관해 당위성으로 접근한다면 젊은 층은 공정성이나 정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약화가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통일인식을 좀 더 균형된 관점이라고 바라보고, 기존의 인식에 함께 녹여내지 못하는 데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를 보는 관점이나 시기에 따라 독립운동가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논의해야 할지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며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게 바람직한 역사관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역사관 존재를 갈등과 대립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에 있어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고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민주 광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명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든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현존하는 이질적인 논의와 견해 상충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Q4.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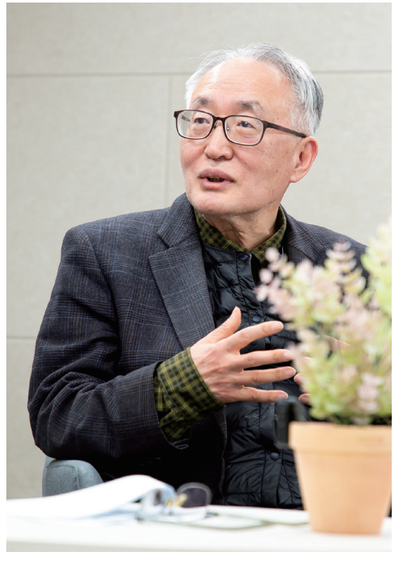
박종철 우리 사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실질적 조정이나 사회적 대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사회, 경제 등의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에 자율성이 작동하지 않고, 사회와 정부 차원의 대화와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공론화를 통한 상호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벽을 허물 수 있는 공론화 메커니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매체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SNS) 등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뉴 미디어 및 SNS 확산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초등 시기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이상 시기에는 시민대학처럼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논의하는 교육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민주사회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며, 지금은 그런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소통 창구를 많이 만들어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명규 서로 이질적이고 견해가 달라도 그것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여 하나의 힘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이 성장해 왔으나 새로운 부족함과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넘어 다른 사람의 견해와 확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결국 공동체를 한 단계 높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역사 해석은 관점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시민대학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논의하는 교육 창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Q5. 현재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종철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19세기 세계 대격변 시기에 나라를 잃었고,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광복을 맞이했으나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만드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분단으로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가 형성되었고 냉전 체제 하에서 50년 이상 극단적 대립 상황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남북경제교류협력, 금강산 관광특구 조성 등으로 잠시나마 관계 진전이 있었으나 국제 정세가 다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시점이 80년 전과 비교할 때 통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이 남북통일 문제와 연결되어 통일의 방법과 미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양상입니다. 내부 소통을 통해 상호 격차를 줄이고 북한과의 원활한 대화 경로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박환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주 등의 한인 디아스포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지 동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북 기조나 통일정책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남과 북의 정부 차원의 관계와 별개로 적십자 등 인도주의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통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명규 202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지어 국내 일부에서도 통일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성세대와 재외 동포 대다수가 통일을 간절히 바란다지만, 젊은 층의 관점은 다를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한민족이었기에 헤어질 수 없다는 당위성 외에 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새로운 담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일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 융합성과 포용성 필요

Q6.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까요?

박종철 북한도 80년 동안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일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뢰와 책임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 인식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그 기반 하에서 북한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국제사회에도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환 역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중장기적으로 통일이 다가왔을 때 좀 더 평화롭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 관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규 큰 디자인은 일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최종 상태에 대한 생각에 묶여 있기보다는 어떤 중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7.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평통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박종철 민주평통은 지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통일 정책 자문과 국민 합의 도출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갈등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평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환 민주평통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조직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민 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큰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명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사회는 위기와 새로운 기회가 산재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고 비전을 세우는 데 민주평통이 역할을 다해주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개인이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보러가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2025년 2월 18일,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제17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통일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운영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개회, 안건 심의·의결, 민주평통 운영 관련 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글. **편집실** 사진. **민주평통**

"국민통합과 통일 미래 비전 실현 활동 강화해 나갈 것"

제17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국민 통합과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2025년 2월 18일,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170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안)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회의는 한 해의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왔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각 위원들의 소신과 판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강조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무처는 민주평통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안)'의 핵심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 업무 추진계획(안)에서는 다음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논의되었다.

1 2월 28일(화) 제170차 운영위원회가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3 회의는 박종우 운영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개회, 안건 심의·의결, 민주평통 운영 관련 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 선도, 현장 특화형 통일활동으로 통일에너지 결집,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세대 참여 대폭 확대, 동포사회 통합과 통일 공공외교의 중심축 역할 수행을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을 논의했다.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2025년의 전략적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안 의결에 따라 올해도 통일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국민 통합과 미래 통일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핵심 추진 과제

❶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 선도**
- 광복 80년 계기,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 활동 추진
- 통일에 대한 소통 확대 및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 전개

❷ **현장 특화형 통일활동으로 통일에너지 결집**
- 지역사회 및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 통일활동 추진
- 탈북민 포용 및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기여

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세대 참여 대폭 확대**
-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통일 공감대 확산
-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

❹ **동포사회 통합과 통일공공외교의 중심축 역할 수행**
- 대륙별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공공외교 활동 강화
- 동포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해외지역 통일활동 전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청년들과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들은 통일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다. 2월 12일 개최된 상반기 청년운영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세대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다졌고, 2월 14일 개최된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은 여성 주도의 통일·안보 활동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세대 간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환경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 마련

2025년 상반기 청년·여성운영위원회 개최 시·노래·축제·탐방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여정

2025년 상반기 청년운영위원회 개최 통일 공감대 형성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 논의

2025년 상반기 청년운영위원회(위원장 윤영민)가 2월 12일(수)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제21기 청년운영위원회 위원 39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사업과 지역 청년 통일 활동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영민 청년운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청년사업들을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하며 "올해도 청년의 시선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되어야 하는 청년과 대학생, 청소년층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세대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위원이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청년 세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격려했다.

이어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최근 전반적인 흐름이 청년들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평통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와 발언, 역할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년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본회의에서는 2025년 청년위원 기획사업 및 지역 청년 통일활동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역 청년 통일활동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DMZ '평화의 길' 청년 이음 캠페인, △문화로 전하는 꽃피우는 청춘 통일이야기, △MZ세대 청년과 함께하는 통일 바로알기, △통일 마라톤, △청춘 평화통일 페스티벌, △남과 북이 함께하는 '나는 솔로'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층 평화통일의 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통일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다양한 아이디어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청년운영위원들은 21기 청년위원 활동에 대한 소회와 22기 청년운영위원회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5년 상반기 여성운영위원회 개최 여성 주도의 통일·안보 활동 강화 및 사업 추진 방향 논의

2025년 상반기 여성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영애 여성부의장)가 2월 14일(금) 오후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체 운영위원 34명 중 23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여성위원장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권영애 여성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위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통일 활동을 이끌어 온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의 통일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운영위원회에 각 지역 대표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재 위치에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여성위원장님들께서 지역 통일 공감대 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새로운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사무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지역 여성 통일활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탐방, △시의 향기로 통일을 노래하다, △북한이탈주민 노래경연대회, △DMZ 여성 평화통일공감 걷기, △여성 평화공감 원탁회의, △한반도 남단에서 울리는 통일의 노래 등 다양한 활동 참가자들은 성과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1 2025년 상반기 청년운영위원회 회의가 2월 12일(수)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 2025년 상반기 여성운영위원회 회의가 2월 14일(금) 2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제1~2차 직능별 정책회의'가 열렸다. 정책회의는 차수별로 해당 직능대표 자문위원 각 120여 명씩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주제강연, 개인별 정책제안서 작성, 조별 토론 및 정책제안 발표, 종합정리,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글. **민주평통** 사진. **박창수**

통일 마일리지 적립부터 경제 통합까지… 구체적 통일 실천 방안 모색

2025년 제1~2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두 차례의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2.19.~20.)는 문화체육·보건복지·교육(1차) 직능을 대표하는 자문위원 120여 명, 2차 회의(2.20.~21.)는 경제과학·건설교통·산업통상·농림수산·환경노동(2차) 직능 자문위원 110여 명이 각각 참석하여 직능 분야별 통일준비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일 차: 뉴미디어 소통과 청년 통일인식 제고 방안 논의

1차 정책회의의 1일 차에는 홍보강연과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공론의 장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뉴미디어 소통과 평화통일 홍보'를 주제로 이현희 민주평통 사무처 전문위원의 홍보 강연이 진행됐다. 이 전문위원은 "평화통일 홍보의 핵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신뢰성 있는 활동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과 의견 수렴, 그리고 여론 형성을 하는 방법에 관해 소개했다. 덧붙여 "자문위원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민주평통의 위상을 드높이는 구심점으로써 활약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강연은 각 직능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주제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보건복지·교육 직능을 대상으로 한 1차 정책회의에서는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세대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박 연구위원은 2024년과 1981년의 청년세대 통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수준이며, 청년기는 학업, 취업, 결혼 등 많은 사회·심리·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임을 설명했다. 또한 막연한 통일 미래가 아닌 국민의 실제 생활과 맞닿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2030세대를 위한 통일공감대 확산 전략임을 강조했다.

1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어진 제1~2차 직능별 정책회의에는 자문위원 총 240명이 함께했다.
2 이현희 사무처 전문위원이 '뉴미디어 시 대의 정책 홍보와 민주평통 평화통일 활동 홍보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3 박주화 연구위원은 '청년세대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4 태영호 사무처장이 특별강연으로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일 차: 자문위원 역할 강화와 창의적 통일사업 제안

이어진 2일 차 회의는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태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자

5 조별토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조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6 조별 정책 제안 발표 결과 '통일마일리지'(4조)가 1차 최우수 정책제안으로 선정됐다.

7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통일 환경 변화와 북한 경제, 통일 미래비전'에 관하여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8 김에스라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이 정책강연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일환경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9 자문위원들이 통일낱말퀴즈를 하면서 강연 내용을 학습하며 소통하고 있다.

10 이번 정책회의를 통해 직능 자문위원들이 통일준비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에 감명받았다"라며 "우리 민주평통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였다"라고 감회를 전했다.

태 사무처장은 "자문위원 활동의 시작점은 주변의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활발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자문위원 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문위원 개개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역 현장에서 평화통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활동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순서는 전날 조별 토론시간에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조별 정책제안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12개 조는 각각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인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좁혀라!'부터 남북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한 '우리 함께 수건돌리기 해볼까?', 'KTX역세권 개발을 통한 K 실크로드 구축', '미디어를 통한 남북한 문화 도장깨기'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의 1인 3표로 진행한 정책 제안 투표에서 통일 관련 행사에 참여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자원 봉사시간 인정, 통일 관련 현장 견학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담긴 '통일 마일리지'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직능별 정책회의 통해 통일 정책 방향 모색

한편 2월 20일 오후에는 태영호 사무처장의 특별강연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의 주제강연으로 2차 정책회의가 시작됐다.

이해정 센터장은 '통일 환경 변화와 북한 경제, 통일 미래비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남북이 경제 통합 시 육상과 해양 연결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5~8위로 발전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남북경제의 통합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날 회의는 김에스라 민주평통 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일환경 전망'에 대

한 정책강연을 통해 2025년에 들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워 중심의 주도권 유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가 통일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조별 정책제안 시간에는 통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K-culture와 연계한 K-관광산업 기틀 마련, 기후 변화 대응 남북공동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대응 남북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그중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전문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통일 벨트 구성'이 투표결과 우수 정책제안으로 채택됐다.

우수 제안 발표 및 종합정리를 끝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된 직능별 정책회의는 막을 내렸다. 정책회의 내내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펼친 자문위원의 제안이 통일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통일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2025년 2월 26일, 민주평통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AI·통일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김성우 한림대 미래융합스쿨 부교수, 김송죽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교수, 두일철 한국외대 AI 교육원 센터장, 정대진 한라대 교수 등 전문가 5인은 AI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평통이 앞으로 어떻게 통일사업에 AI를 접목할지에 대해 토의했다.

글. **구지회** 사진. **조인기**

AI 기반 미래 통일을 말하다

AI 긍정적 활용으로 민주평통의 역할 확산 기대

AI·통일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1

통일 활동 사업과 AI 활용 방안

통일 활동 사업 관련 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통일 분야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2월 26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AI 및 통일 분야 전문가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현재 고전하는 이유가 AI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AI 시대에 이 기술을 통일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를 맡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송죽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교수는 여러 AI 프로그램을 즉석 시연하며, 시민 대상 강연, 체험, 홍보 및 광고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송죽 교수가 AI로 순식간에 만든 통일 주제 노래에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가사를 입력하고 노래 스타일만 선택하면 곧바로 멜로디를 만들어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통일 포스터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현장 교육 예시, 활용 아이디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2

3

4

덧붙여 정 교수는 "민주평통이 AI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AI에 필요한 원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우 한림대 미래융합스쿨 부교수는 실제 교육 경험에 기반해 학생 참여 동기를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일 교육에 AI를 사용하기보다는 AI에 대해 가르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교수법을 추천하는 한편, SLM(Small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한 통일 디지털 트윈 육성 교육 등을 예시 수업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두일철 한국외대 AI 교육원 센터장은 통일이나 북한 관련 AI 데이터 학습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AI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확신에 차서 말하는 환상 효과(Hallucination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I, 피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AI의 단점과 대응 방안, 깊이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AI 시대는 도래했고, 되돌릴 수 없다"라며 AI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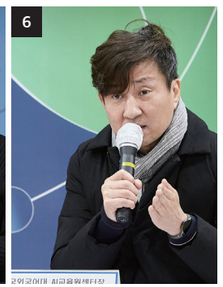
가령 AI의 편향성, 혐오, 폭력 성향에 대해서는 "AI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를 학습한 존재로, 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며 "AI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AI 이용으로 인해 지식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 거부는 쇠퇴로 이어진다. AI 사용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정교하게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AI가 학습한 통일과 북한 관련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 AI가 뻔한 대답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주평통이 보유한 방대한 통일 관련 데이터를 서둘러 AI에 학습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의 통일 문제 접근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술발전에 발맞춘 통일담론, 통일교육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1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5인은 AI를 활용한 미래 통일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 사회를 맡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3 김송죽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교수가 AI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4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민주평통이 AI에 필요한 원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5 김성우 한림대 미래융합스쿨 부교수는 학생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6 두일철 한국외대 AI 교육원 센터장은 '통일과 북한 관련 AI 데이터 학습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5

6



2025년 20대가 1981년 20대에게 던지는 질문

20대 시절, 왜 통일에 부정적이었습니까?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로 평가되며,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갈등이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극명한 대립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예외적으로 수렴되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청년세대의 통일인식에 관한 문제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모든 정부는 청년세대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공통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2024년 9월 6일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청년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전북지역 청년 대학생 2,500여 명과 함께 '2024 청춘 평화통일 페스티벌-통일로 한걸음 in 전북대'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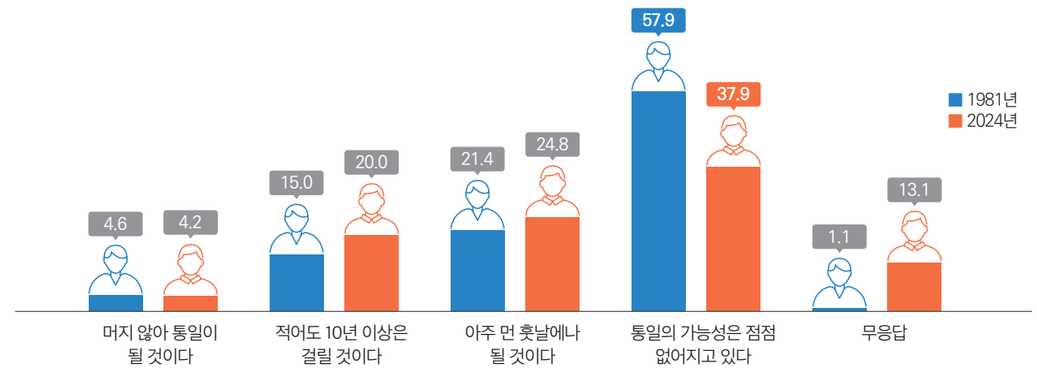


그림 1.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20대의 응답

통일에 무관심한 1981년 대학생과 2025년 20대

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24개 대학의 학생 8,498명에게 국내문제와 통일문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질문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의 54.4%가 통일문제보다 국내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문제가 국내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였다. 통일에 대한 다른 질문에서 대학생의 절반인 50%가 '대가가 너무 크다면 당분간은 이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35.6%였다. 통일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대학생의 61.4%가 '통일은 나 자신의 삶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불러오는 정도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통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였다. 굳이 다른 문항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이다.

이 조사는 2025년의 대학생이 아니라 1981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 즉 2025년 60대가 20대 시절에 응답한 결과라는 것이다. 2025년 20대의 통일인식을 걱정하는 기성세대들도 자신들이 20대였던 시절에는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1981년의 대학생과 2025년의 20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4년 2차 수시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 1,000명에게 통일 가능 시기를 물어보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1981년 대학생의 응답을 함께 <그림 1>에 제시했다. 1981년 20대의 경우 과반이 넘는 57.9%가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37.9%가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적어도 1981년 20대의 통일인식과 2025년의 통일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981년에 이루어진 대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는 청년세대의 통일인식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성세대들은 오늘날의 20대를 향해 '통일에 무관심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 역시 20대 시절에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1981년에 이루어진 대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는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년세대에 '왜 통일에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다. 1981년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는 청년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를 굳이 2025년의 20대에게 찾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2025년의 20대만큼이나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1981년의 20대가 그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20대가 아닌 과거의 20대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왜 그러셨습니까? 왜 당신은 20대에 통일에 부정적이었습니까? 2025년 20대가 1981년 20대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질문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질문을 좀 더 순화시켜 보자. 청년세대가 시대를 막론하고 통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1) 통일부, 『전국 대학생 통일문제 및 국가관 의식구조 실태조사 결과』 (서울, 통일부, 1981).

회고 절정을 통해 본 20대의 의미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라고 요청했을 때 20대 시절의 사건들을 가장 많이, 가장 생생하게,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현상을 '회고 절정'이라고 한다. 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노년기에 4050대의 사건보다 훨씬 더 과거인 20대의 사건이 더 많이 기억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20대는 가장 많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인 20대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20대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믿음은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20대에는 졸업, 취업, 연애, 결혼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20대는 졸업을 해야만, 취업해야만, 결혼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믿고 있다.

명절마다 '졸업은 언제 하니?', '취업은 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같은 친척들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청년들의 풀죽은 모습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친척을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친척분이 자신의 자녀에게 졸업, 취업, 결혼보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1981년의 20대도 졸업, 취업, 결혼이 통일보다 중요했고 2025년의 20대도 졸업, 취업, 결혼이 통일보다 중요하다. 결국, 청년세대가 시대를 막론하고 통일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통일보다 당장의 삶, 아니 자신의 생애를 결정지을 수 있는 현실적 과제가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청년세대가 시대를 막론하고 통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인 것이다. 단 1981년의 20대와 2025년의 20대의 차이는 그들은 졸업, 취업, 결혼을 했고 이들은 아직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야 한다. 설득의 핵심은 공감이다. 공감 없이는 어떤 논리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없다.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공감에는 공감으로 되돌아온다. 이를 사회적 영향의 호혜 원칙(social influence principle of reciprocity)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 그들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통일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해야 한다. 청년세대에 먼저 '우리도 같은 시절을 겪었다', '나도 그랬다'라고 공감의 말을 건네보자.

민주평통이 청년세대와 공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쉽게 생각하자. 초·중·고·대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에 민주평통이 '축하한다'라는 현수막을 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굳이 내세울 필요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브랜드만으로도 통일과 평화를 전달할 수 있다. 공감의 힘을 믿어야 한다.

둘째 '통일의 편익'이 아닌 '통일에 관한 관심'에 성과급을 줘야 한다. 먼 미래에 일어날 통일이 그들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취업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일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이며 연령대에 따라 차이도 크지 않다.[2] 다시 말해 통일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작 그것이 현실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다. 그들의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되는, 그들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론에 기반한 청년 통일인식 담론을 멈춰야 한다. MZ세대만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위 산업화 세대들도 20대 시절에는 통일에 부정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 통일인식 담론은 나와 다른 세대, 즉 너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하지만 1981년 대학생 통일의식 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왜 통일에 관심이 없느냐'라고 묻기보다 기성세대 스스로 '왜 우리는 20대에 통일에 관심이 없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1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군사적 전초기지인 도라전망대. 남북한의 경계선과 가까운 곳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

2 MZ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세대론에 기반한 청년 통일 인식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 우리가 청년이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청년세대가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이해하고 통일인식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김범수 외, 『2024 통일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제정치

미국 우선주의가 초래할 글로벌 혼돈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국제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한 그는 불법 이민 단속, 중동전쟁 종식, 중국과의 무역전쟁 심화를 추진하며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군사 개입을 줄이고 미·중 경쟁에 집중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대외정책은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세 또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질서를 안정시킬지 혼란을 가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백일이 되지 않았으나, 국제정세는 매일 혼돈 상태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미국 유권자의 대내적 결핍을 활용한 포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의 정책 공약을 쏟아낸 바 있다. 선거 기간 동안 특히 강조한 것은 미국의 국경보호와 불법이민자 추방, 중동전쟁 종식,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이었다. 이는 미국이 지난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극히 내향적인 미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물론 선거라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유권자들은 대외정책보다 대내정책을 중시하며, 특히 경제문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개한 정책들은 지극히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오히려 미국을 약화시키며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대외정책의 특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자제(restraint)를 통한 위기 고조 억제 및 예방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미국이 국제질서 속 우위(primacy) 지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현상 변경 강대국과의 군사적 위기 고조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대러 장거리 미사일 사용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러시아와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켰다며 비판한 바 있다.

둘째, 축소(retrenchment) 대외정책 기조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분쟁 개입을 중단하고, 미·중 경쟁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이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된 특징은 아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지역에 대한 관여를 축소하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어 더더욱 축소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2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대외 개입 축소,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며, 강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위기 고조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현재의 교착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내부 요인들이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미국 국방부 내에서 오랜 시간 논의됐던 전략적 파산(strategic insolvency)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두 개의 전구에서 전쟁이 발생할 시 미국이 모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과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미 국방부의 판단으로는 전략과 역량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과 동맹국의 국방비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안보 분담은 단순히 비용 분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 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호 동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핵 억제력과 호주의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같이 지역별로 동맹국의 거부억제 역량과 미국의 처벌억제 역량, 그리고 역할의 조합과 통합을 통해 역량 기반 지역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치외교의 방기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을 독려하며 권위주의 현상 변경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도

발에 집단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유사 입장국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치뿐만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유지해 온 국제질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주권을 무력으로 침범한 사건으로,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많은 전쟁범죄 증거를 확보했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럽에서의 현상 변경을 막으려 노력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갈등(conflict)이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와의 일방적인 종전 협상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는 광물 협정 체결을 협상하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희토류 채굴 이권 50%를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히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유럽 안보 공약이 약화함에 따라 유럽 주도의 핵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미국의 권력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규범과 제도적 권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자발적 방기는 결국 미국 국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도력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다극화되고 분절화된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강대국 관계 설정과 한반도로의 함의

위와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속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경쟁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를 팽창주의적 정책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법도 채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만 축소 대외정책 기조 속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미·중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우선 불필요한 분쟁에 대한 관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기간에 종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현재의 미·중 경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를 대중국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의 최우선 협의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하지만, 미·러 핵 군축조약 재협상이 더 시급할 것이다. 현재의 핵 안보 지형은 비대칭 핵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러 간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미·러 간 핵 군축 조약 협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간 진척이 어려웠는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전략적 안정성 약화의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논의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러 관계 정상화가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선에 특수부대 등 12,000여 명(4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올해 초에는 1,500여 명을 증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대미·대남 레버리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는 취약한 대내적 내구력을 공고화하려는 조치로도 풀이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로도 현재의 북·러 제휴 수준이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러 관계 회복을 통해 대중, 대북 관계에 대한 레버리지 마련을 목표로 할 것이나,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대미 레버리지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제휴가 북핵의 암묵적 동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역시 대러, 대미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세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은 궁극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화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다면 한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도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며,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대북정책이 북핵 위협 감소 수준에 그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2기, 미국의 우위 회복 가능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로 쏟아내는 각종 행정명령과 정책들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을 기존의 대통령과는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주의에 대한 반감과 미·중 경쟁의 우선순위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 접근법이 맞물려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바이든 행정부 당시 협력했던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는 약화되고 있고, 이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내러티브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1일 당대표단 단장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히용 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2월 27일 만났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허와 실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 김정은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북한은 2024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1차 연도 사업을 돌아보며 “완벽한 첫 실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란 북한이 10년간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중장기 계획이다. 김정은은 2024년에만 9차례에 걸쳐 관련 공개 활동(현지 지도, 착공·준공식 참석 등)에 나서는 등 자신이 직접 정책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과제와 전망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3월 23일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표 1. 김정은 ‘지방발전 20×10 정책’ 관련 공개 활동 동향

일자	지역	주요 내용
2024.2.7.	강원도 김화군	- 식료공장·일용품공장·종이공장 현지 지도 • 공장 건설 전 원료기지 조성 및 보장 가능성 등 타진, 해당 시군의 특성에 맞는 공장의 규모, 건설부지 선정 필요성 강조
2024.2.28.	평안남도 성천군	-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참석 • 지방경제를 재건하여 지방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라 강조
2024.8.24.~25.	여러 지방공업공장	-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 병행, 지방 중흥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
2024.8.31.	-	- 지방발전사업협의회 소집 • 전국의 시군에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중심(거점) 양곡관리시설도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 수행 관련 정책 결정채택 준비사업 추진
2024.8.31.	함경남도 함주군	-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 • 모든 건설장비의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 지방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일 것을 강조
2024.10.5.(추정)	평안북도	-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 •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의 설계를 해당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게 합리적, 실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2024.11.14.	황해남도 재령군	-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 • 지방발전 10년의 첫해부터 성공적인 성과로 지방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함을 강조
2024.11.19.	평안남도 성천군	-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 • 20개 시군에서 전국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만족 표시
2024.12.20.	평안남도 성천군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 •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의 3대 필수 대상건설을 더 추가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

정책 추진 범위 확대 양상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1차 연도인 2024년에는 2월 말부터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12월부터 연속적으로 준공식이 열렸다.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20개 지역의 공장 건설 현황을 위성사진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건물 지붕을 포함한 공장의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2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이어 11월 건설현장 방문, 12월 준공식에도 참석하면서 연설을 통해 “새해 시작과 함께 수십 개의 지방공업공장이 성천군에서처럼 전국의 근 20개 시군에서 일시에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북한의 경공업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필두로 학생 신발공장 건설, 밀가루 가공식품 공장 건설 등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경공업 부문 추진 과제는 예년과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기조로 지방공업 및 밀가루 가공업, 학생용품 공급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북한은 2024년 경공업 부문의 주요 과제로 인민소비품·기초식품의 질 제고, 경공업공장 및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누에치기 부문 발전, 상업·급양·편의봉사사업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식료품 공업과 관련해 밀 증산에 따른 현대적인 밀가공공장 건설, 밀가공 기술 개선 및 제품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했다.

한편, 경공업성 등은 각지의 교복 생산 단위들이 학생 필수용품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2024년에는 학생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학생 교복공장 및 학생 신발공장 건설이 전국 각지에서 이뤄졌으며, 2024년 후반기부터 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밀가루를 활용한 즉석 국수공장이 준공되고 있다.

북한은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더해 2024년 8월 김정은이 지시한 '3대 필수 건설 대상'인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시켰다. 김정은은 지난 8월 지방공업공장 현지 지도를 통해 각 시군에 병원, 과학기술 보급 중심, 양곡관리소 추가 건설 등 '3대 필수 건설 대상'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9월 북한 정권수립일 연설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중심을 영화 관람, 체육·문화생활, 위생환경이 보장된 상업망 및 기타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형 문화중심으로 확장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서 출발해 점차 보건과 생활문화를 아우르며 도농 격차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지방 발전정책으로 그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2차 연도를 맞아 2월 평양시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에 이어 남포시 용강군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본격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원의 한계와 무리한 정책 추진

그렇다면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공장 외관의 완성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 지방공업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한 자금, 자재, 노동력 등 개발 재원의 원활한 공급 여부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공급 여력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북한 공장기업소 생산의 만성적 장애요인인 원자재 확보 및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서둘러 공장의 외관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2024년 상반기 경공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정책 추진 범위가 9월 이후 보건시설,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 건설 등으로 무리하게 확장된 것은 정책 추진 성과에 더욱 의문을 품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김정은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해 온 평양종합병원(2020.3 착공, 2025.2 완공)조차도 아직 개원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년 20개 시군에 보건시설과 복합형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 속에서 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농촌·농업 진흥 정책인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2022~)'과 '지방발전 20×10 정책(2024~)'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적인 자원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성은 경제의 질적 성장이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북한 경제의 장기적 토대 구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북한은 한정된 자원으로 단기 과제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공적 마무리를 선언해야 하는 동시에 장기 과제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단-장기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정은의 지도력 확보와 체제 결속을 위해 단기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과 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작용하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원 배분의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원 부족 문제와 정책 연속성의 약화로 인해 5개년계획과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 모두에서 제한적인 성과에 머무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2025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면서 당 중앙위 제8기의 마지막 해로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재확인하고, 공고화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해다. 최근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애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2025년을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지난 5년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인민들에게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성공을 선언하면서 김정은 지도력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4년 전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16~2020)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두 번 연속 실패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5개년계획의 성과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5개년계획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추진됐으며, 생산량 목표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생산 기반과 토대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에 인민 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서 성과를 강조하면서 일부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농촌살림집 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2025.6 개장 목표) 등 구체적 성과를 과시할 것이며, 특히 민심을 확보하고 통치 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성과를 홍보할 것이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북한은 이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북한은 SDGs 이행 상황을 담은 자발적국별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UN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목표 3번(모든 인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 보건인력 부족, 제약·의료기기 공장의 기술 기반 부족, 필수 의약품 부족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목표 10번(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 보장)과 관련하여 '도농 격차 해소'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도농 격차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14일 함경남도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착공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2 지방발전 20×10 정책 포스터 ©나무위키
3 북한 원산 거리 풍경 ©셔터스톡

소통과 불통 사이에 있는 남북 언어의 차이

분단 80년 남북 언어의 이질화…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

김정은 시기의 언어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언어 정책과 차이가 있다. 민족어로서 '조선어'의 민족보다는 '국어(國語)'로서 국가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호의 사용도 연장선에 있다. 언어가 달라지면 민족의 공통성은 휘발된다. 나아가 민족도 분열된다. 분단 8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남다른 것은 언어의 이질화는 곧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1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어진 언어의 경계선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해야 할 오염원으로 명시한 것은 '비규범적 언어', 정확히는 '비규범적 언어'의 원천은 이른바 '괴뢰'로 표현한 남한 말이었다. 법의 명칭은 '보호'이지만 조항은 '비규범적 언어'의 유입, 유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강력한 통제로 채워졌다.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겨운 쓰레기 말"(제2조 정의)이라고 정의한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제1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는 목적의 강도 높은 처벌로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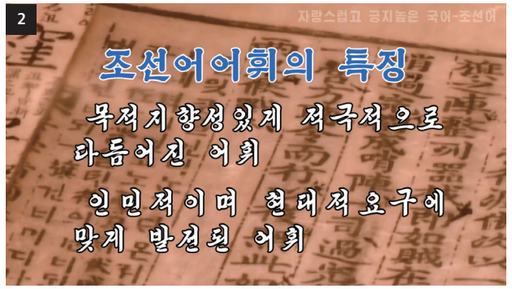
세간에 알려졌듯이 가족 호칭인 '오빠'를 비롯해, '님'이라는 존칭도 일부 사용을 제외하고는 '괴리 언어'로 규정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에는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 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북한 주민인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었다. 또한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이 괴뢰식 부름말을 본뜨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언어를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할 수 있는 언어까지도 각성하고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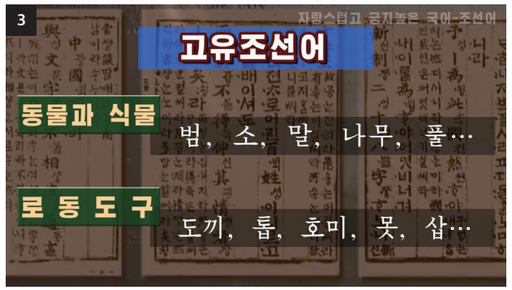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규제 내용과 처벌 대상은 남한과 관련된 일체가 포함된다. "괴뢰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부터 호칭 등의 언어생활, 남한의 출판물,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대북전단을 비롯해 '강하천이나 바다로부터 유입된 괴뢰말 찌꺼기', '인터넷 서체', '방송물', '그림', '사진', '족자', '휴대전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하다. 처벌 대상에는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공민은 물론, 괴뢰말이 유입될 수 있는 국경이나 강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경내로 유입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벌에서도 '엄한 법적제재'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6조 "괴뢰 말투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원칙"을 보면 "국가는 괴뢰 말투를 본뜨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나 범죄자로 각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처벌 방식도 처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시범을 보이기 위한 공개 처벌을 원칙으로 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제35조(공개투쟁을 통한 교양)로 명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료 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통해 "썩어빠진 괴뢰 문화에 오염된



2



3

1 북한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은 조선말의 어휘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으로, 북한의 언어 정책과 표준어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2 조선어 어휘는 북한의 언어 정책, 사회적 배경,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남한의 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3 조선어(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어휘는 남한의 한국어와 기본적인 뿌리를 공유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

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적극적으로 예방해 원천적인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보호'를 명분으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배격"하기 위한 소극적 차원의 문화 통제를 넘어서는 법이다. 그야말로 '괴뢰말투와 관련한 어떤 것'이라도 유입과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사회 통제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은 사회 통제를 넘어 언어의 분단을 상징한다.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남한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은 '남조선'이었다.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서에서는 '남측' 또는 '귀측'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4년부터 남한 관련 기사에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 '(괴뢰) 한국'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이 단지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한 법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사회 통제 수준을 넘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실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남과 북을 분명하게 가르는 강력한 분단의 벽을 친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언어 차이

북한의 이런 입장은 기존의 언어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김일성부터 '언어가 민족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서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피줄이 같고 한 령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고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두 개의 조선》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언어적 차이가 커"지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 것"[1]이라는 입장이었다.

'문화어'는 북한이 정한 표준어의 명칭이다. '문화어'라는 새로운 언어 표준을 정한 것은 1966년이었다. 김일성은 1966년 5월 14일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일군들과 한담화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에서 '문화어'를 새로운 표준어로 규정했다.

'문화어'를 별도의 언어 표준으로 정한 명분은 '언어의 오염'이었다. 민족어가 영어, 일본어, 한자어 등에 오염되면서 민족어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민족어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족어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있는 평양을 기준으로 한 문화어를 민족어의 표준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문화어'는 기본적으로 평양말이다. 이때 평양말은 지역적인 의미 이상이었다. '평양문화어'라고 하지 않고, '문화어'라고 한 것은 '평양'이라는 지역성보다는 문화성, 즉, 사회주의 조선의 혁명 수도인 평양에서 문화성 있는 언어를 강조하는 의미였다. '문화성'은 표준어의 원칙으로서 '교양 있는 서울말'에서 '교양'에 해당하고, 문화어는 사회주의 혁명화가 진행된 '고상한 평양말'이었다. 새로운 표준으로 '문화어'를 정하고, '조선문화어 사전'도 발행했다. 하지만 언어의 중심은 민족이었다. 국어사전도 '조선문화어사전'을 제외하고는 '조선말사전'이었다.

김정일 시기까지의 언어 정책은 민족의 공통성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민족어의 특성을 살리고,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국토가 분단되고, 정치와 경제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분단이 길어졌지만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놓지 않았다. 조선어는 오랫동안 조선 민족이 공유한 언어라는 인식이 확고했기에 남한과 북한이 다른 언어의 기원을 가졌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을 부인하고 민족 분열 책동과 식민지화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기의 언어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언어 정책과 차이가 있다. 민족어로서 '조선어'의 민족보다는 '국어(國語)'로서 국가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호의 사용도 연장선에 있다.

1) 차영애 편집, 「민족어를 발전시키는 데서 견지한 원칙」,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5, 6~7쪽.

'소통'과 '불통' 사이의 남북 언어

언어라고 하면 오랜 옛날부터 시작해 장구한 시간 속에 생활과 문화를 함께 하면서 올곧게 굳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언어가 태어나고 유통되고 자리 잡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실제로 많은 언어가 분화되고 새로운 언어들이 출현한다. 제국주의 시기에는 식민지 지역에서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졌다. 낯선 언어, 새로운 문화와 접하게 된 원주민들이 두 가지 언어를 섞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었다. 이런 종류의 언어를 '피진(pidgin)'이라고 한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태어난 콩글리시도 피진의 일종이다. 피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용어가 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면 새로운 언어 크레올(creole)로 불리게 된다. 크레올은 일종의 혼종어이다. 언어를 비롯해 이질적인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로 태어날 때도 크레올이라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10년 또는 20년이면 된다. 남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80년 동안 유통되었으니 달라졌어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4-5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조선말 사전을 편찬해 왔으며, 2004년판은 기존 사전을 보완·확장하여 출간된 개정판

6 북한의 언어 규범과 어휘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전 중 하나인 현대조선말사전(1981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사실인지 알 수 없다. 탈북민이 충분히 이해한 것인지, 이해하는 척을 한 것인지, 남북의 언어가 차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돼서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남북의 언어는 소통과 불통 사이에 있다. 분명한 것은 생활어보다는 공식어에서 차이가 크다. 언어는 폭이 매우 넓다.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그 자체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타문화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언어가 소통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년이나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언어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언어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다. 마차가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는 말[馬]이나 마차에 관한 언어들이 생겨나고, 자동차가 교통수단이 되면 차와 관련된 언어가 생겨난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디지털 언어가 생겨난다. 정보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에는 이른바 '통신어'가 생겼다.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상징의 이론』에서 "언어는 민족의 정신을 표명하기 위한 특권적인 방법"이면서도 "거꾸로 민족이 그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다. 언어가 달라지면 민족의 공통성은 휘발된다. 나아가 민족도 분열된다. 분단 8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남다른 것은 언어의 이질화는 곧 민족의 분열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무오독립선언의 뜻, 선양에서 후손들과 함께하다”

제106주년 무오독립선언 기념식 및 2025 한중우호 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통 선양협의회가 지난 1월 17일 중국 선양 웨스틴 호텔에서 ‘제106주년 무오독립선언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 (이하 선양협의회)는 중국 선양 웨스틴 호텔에서 ‘제106주년 무오독립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희덕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김정열 중국한국인회 동북3성연합회장을 비롯한 동북3성 지역 한국인회 회장단, 민주평통 자문위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글. **편집실** 사진. **민주평통**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 계승 다짐

무오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중 우호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오독립선언서 낭독 △기념 영상 상영 △독립군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영완 중국부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다시금 새기고, 통일이라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독립인 통일의 그날까지 ‘나도 독립군이다!’를 외치며,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오독립선언서 낭독

기념 영상 시청

무오독립선언문 민족대표 39인 서명식

이어서 태영호 사무처장은 영상 축사에서 “무오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한 불꽃을 지폈다”라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선양협의회 자문위원과 대학생 대표, 재외공관 대표 등 총 7명이 단상에 올라 ‘무오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결연한 의지를 되새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념 영상에서는 무오독립선언의 배경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영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온 독립 의지를 마음에 새겼다.

독립군가 제창 순서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함께 독립군가를 부르며,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민족대표 39인 서명 퍼포먼스’였다. 참석한 내빈들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서명했던 방식대로 개별적으로 서명을 하며, 이를 하나의 거대한 ‘민족대표 39인 앨범’으로 완성했다. 이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에게 1919년 무오독립선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결연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한 뜻깊은 간담회

한편 기념식에 앞서, 박영완 부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희덕 총영사와 독립유공자 우병렬 선생의 증손자 우승희 씨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참석했다.

박영완 부의장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희덕 총영사도 “100여 년 전 이 지역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통해 독립을 실현했듯이, 후손인 우리들도 국난극복의 정신을 본받아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선물 증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다음날인 1월 18일에는 ‘2025 한중우호 통일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미래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봉섭 광운대 초빙교수가 사회를 맡고, 여러 전문가가 한중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양국 간의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1월 18일 개최된 2025 한중우호 통일포럼

"우리는 한 민족!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한 설맞이 잔치"

경북 영주시협의회,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2025년 2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김동조, 이하 경북 영주시협의회)는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을 영주시 관내 식당에서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풍성한 식사와 윷놀이 대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함께 마련한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위촉식이 행사를 더욱 빛냈다. 행사를 준비한 영주시협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정착 지원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글. **구지회** 사진. **박창수**

1 경북 영주시협의회는 2월 22일,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2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3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북한 음식
4 참석자들이 설날을 맞아 열린 윷놀이 대회를 즐기고 있다.

함께하는 마음이 곧 평화통일로 가는 길!

영주시협의회는 2025년 2월 22일,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협의회 김동조 회장은 "오늘 행사는 영주시협의회가 10년 넘게 개최해 온 명절 행사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행사 첫 순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위촉식이었다. 김동조 회장은 박명희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 배지, 꽃다발과 함께 관내 북한이탈주민 열네 가구에 전달할 생필품 교환권을 증정했다. 김 회장은 "작년 11월 위촉 이후 위촉장을 전달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드디어 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날을 잘 고른 덕인지, 오늘은 마침 박명희 자문위원의 생일이기도 합니다."라는 말로 겹경사를 축하했다. 박명희 자문위원은 "경북 영주시협의회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오늘 잔칫상은 모두가 십시일반 준비해 온 음식으로 더욱 풍성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접 만든 감자떡과 순대 등 귀한 북한 음식이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윷놀이 대회가 열렸다. 왁자지껄 화기애애한 풍경이 마치 명절 큰집에 와 있는 듯했다. 모두가 한민족이기에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설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남녀노소 남과 북 모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모습이 이미 통일이었다. 평화팀과 통일팀으로 나눠 대결한 오늘 대회의 우승팀은 통일팀! 그 기운을 받아 2025년은 모두에게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니 인터뷰

김동조 경북 영주시협의회 회장

제21기 영주시협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는 자리를 더욱 늘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개최한 '북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뿐만 아니라 매달 멘토·멘티 행사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업 설명회 개최, 취업 지원, 출산 지원금 전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한 일 또한 큰 성과입니다. 올해도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영주시협의회를 기댈 곳으로 삼아 자신감 있게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제주지역회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통일 염원하는 남북이 하나로!

202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제주도민 어우렁 한마당 개최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통일 염원하는 한반도를 완성했다. 지난 3월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가 주최한 '2025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제주도민 어우렁 한마당'(이하 '어우렁 한마당')에서다.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먼저 온 통일'로 일컫는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제주도민이 신나게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하나센터,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제주통일교육센터, 제주하나센터 등 각종 지역 기관과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글. **오민영** 사진. **민주평통**

1 올해 처음 개최한 어우렁 한마당엔 현지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제주도민 등 약 300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2 흥 돋우는 제주트롯장구
3 소프라노 오능희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가요 <감수광>을 열창
4 효심 강사의 활기 어린 몸풀기 체조 시간
5 하나로 단합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걸음

북한이탈주민과 제주도민이 한자리에…환한 웃음꽃 '활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충홍)에서 개최한 어우렁 한마당을 중심으로 제주 귀일중학교 체육관에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이날 행사엔 고충홍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현지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제주도민은 물론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모여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제주트롯장구팀의 식전 공연이 흥을 돋운 현장에선 본격적인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등이 이어졌다. 민주, 평화, 통일, 제주 등 네 개 팀으로 나뉜 전체 참석자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존경과 자부심을 되새겼다.

서로 손잡고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

곧이어 고충홍 제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어우렁 한마당의 막이 올랐다. 감사 인사와 함께 "현재 제주엔 북한이탈주민 약 350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운을 뗀 그는 "어렵사리 북한에서 벗어나 이곳에 정착한 주민 여러분이 잘 적응해 행복한 일상을 맞이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우렁 한마당이 제주하나가족과 도민이 손잡고 가까워지는 계기이자 관계를 긴밀히 연결하는 구심점이길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축사에 나선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역시 "오늘 행사는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따스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제주는 다양한 문화와 대상을 포용하며 공존과 평화를 실현해 왔다. 우리 도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70만 제주도민과 합심해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 총장 등이 환영 메시지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함께 어울려 즐기고 남북한 별미까지 맛보는 기회

소프라노 오능희의 축하공연으로 어우렁 한마당 1부가 열렸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으로 등장한 그는 제주를 대표하는 가요 <감수광>을 객석과 함께 불러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한효심 강사가 진행하는 몸풀기 체조 시간엔 모든 인원이 하나같이 동참해 활기를 얻었다.

백미는 북한이탈주민과 제주도민의 줄다리기 경기였다. 온 힘을 다해 겨루는 시합에서 승리한 하나 가족이 환호성을 올렸고, 도민은 같이 웃으며 축하해주었다. 이어서 네 개 팀별로 인간 파도타기와 공던지기가 열렸다. 한창 열기가 달아오를 무렵, 다가온 점심시간엔 잔치국수와 개성순대, 평평이 떡(옥수수 인절미), 제주 돔베고기(돼지고기 수육) 등 남북한 별미가 같이 나와 즐거움을 더했다.

노래자랑 가사 한 줄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진심이 가득

2부에서는 댄스 기차 릴레이, 3인이 발맞춰 코너를 돌아오는 협동몸빼바지 경기가 있었다. 또, 심사위원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청자 약 20명이 열정적인 노래자랑을 펼쳤다. 그 결과 최우수상과 인기상이 각 1명, 우수상은 2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가요 <붓>을 부른 김경애 씨가 차지했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나가세', '함께 산 건 오천 년인데…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가사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체 경기 종합 점수로는 네 팀 중 제주팀이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재미와 진정성이 돋보인 어우렁 한마당은 남북이 단합하는 행복을 선사하며 즐겁게 마무리했다.

2025년 2월 25일에 개최한 '희망바자회' 기념 촬영

한일 간 평화와 소통의 가교 역할, 일본 동부협의회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중적 지지와 이해 확산에 중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동부협의회(회장 육종문)는 일본 내에서 활발히 통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로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동부협의회는 특히 한국의 통일 문제를 일본 사회와 재외동포 사회에 널리 알려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일본 동부협의회**

자문위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통일 공감대 확산

일본 동부협의회는 일본 내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활발한 통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육종문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홋카이도부터 도쿄, 가나가와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을 알리고 현지 주류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협의회를 소개했다.

탈북민 청소년야구팀 지원하는 희망바자회 개최 사회 적응과 국제 활동 지원

2025년 2월 25일, 일본 동부협의회는 일본 도쿄에서 탈북민 청소년야구팀의 사회 적응을 돕고 국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내 한인 사회와 현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육종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탈북민 청소년야구팀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라며 "많은 분의 정성과 나눔이 담긴 후원금이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도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희망바자회를 개최한 뜻을 전했다.

또한 김현 새한반도야구회 이사는 "야구팀을 처음 설립한 목적은 단순히 탈북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바자회를 통한 후원이 북에 연고가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탈북 청소년야구팀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희망바자회에는 일본 내 한인기업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후원 물품을 기부했으며, 이를 판매하고, 개별 성금을 모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바자회에는 의류, 생활용품, 도서,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판매되었는데 그 중 한국식품과 천연석 실버 주얼리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죽, 삼계탕, 추억의 과자 등도 판매가 잘 됐다.

바자회에 기부의 뜻을 전한 한 참석자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행사였다"라며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일본인들에게 멀어져만 가는 줄 알았던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바자회 판매액은 약 170여만 원, 기부금은 350여만 원이 모아졌으며, 기부금 전달식은 3월 7일 1분기 정기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익금 전액은 탈북민 청소년야구팀의 훈련비, 장비 지원, 국제 경기 참가 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2024년 평화통일 스피치대회 평화통일을 향한 공감대 형성

또한 일본 동부협의회는 현지 및 재외동포 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우호 여론 형성을 위한 '2024년 평화통일 스피치대회'를 2024년 7월 18일 도쿄에서 개최했다.

스피치 대회에는 총 7명의 연설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 방안, 국제 협력의 중요성, 고정관념을 극복한 새로운 통일 담론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 결과 대상은 "평화통일은 내년 3월이면 된다!!"라는 주제로 연설한 이광종 위원이 수상했으며, 인기상은 "북한 인권문제와 청년 세대의 역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한 송원서 교수가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연설자는 "평화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 내 한인 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2024년 7월 18일에 개최한 '평화통일 스피치대회' 기념 촬영

희망바자회에서 기부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추억의 과자들

"함께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멘토-멘티의 소통과 교류로 통일 공감대 높인다

대전 대덕구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최재한)는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형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의 모든 활동은 '함께'를 위한 활동이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대전 대덕구협의회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았다.

글. **구지회** 사진. **박창수**

대전 대덕구협의회는 2024년 12월 16일 협의회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현황

위원 수

48명
(직능대표 39명, 지역대표 9명)

중점 추진 분야

탈북민 적응지원 | 지역사회 나눔봉사 | 미래세대 통일교육

간부위원 현황

협의회장(최재한), 수석부회장(김영호), 부회장(김현숙, 정이철, 최길업),
간사(한경학), 분과위원장(이현주, 김두현, 김홍렬, 김선미, 노현숙, 오창영),
분과부위원장(권지혁), *고문(곽인상, 김호균, 박흥용, 심현자, 이래희, 이문초, 정남수)

분과 구성

6개 (기획홍보, 국민소통, 탈북민지원, 문화예술, 여성, 청년)

작지만 강한 대전 대덕구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는 작지만 강한 조직이다. 타 협의회에 비해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비결로는 북한이탈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분과 위원장 자율권 증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참여를 늘린 일례로는 대전 대덕구협의회가 도입한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 제도'가 있다. 기존 자문위원 외에 북한이탈주민으로만 구성한 명예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최재한 회장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면 더욱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은 정기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북한음식 체험 부스를 운영한 것 또한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다. 관련하여 탈북민지원분과 김홍렬 위원장은 "대전 대덕구협의회는 모든 활동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참여 지원을 약속했다.

분과 위원장 자율성 증대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졌다. "일부 사업은 분과 위원장이 자체 결정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진이 사업을 일괄 기획하고 공지하던 때보다 새롭고 다양한 기획을 더욱 빠르게 실현하게 되었지요." 대덕구협의회 노정인 행정실장의 설명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심히 지원합니다

대전 대덕구협의회 활동은 크게 탈북민 적응 지원, 지역사회 나눔 봉사, 사업홍보, 미래세대 통일교육 네 갈래 분야로 나뉜다.

탈북민 적응 지원 사업으로는 우선, 멘토·멘티 활동이

1 최재한 회장(앞)과 한경학 간사(뒤)
2 이번 설날에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강화 평화전망대 망배단에서 망향제를 개최했다.
3 대룡시장에서 이북 먹거리를 맛보며 향수를 달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이 결연하여 교류하는 사업으로, 최재한 회장 역시 관내 양궁 영재 북한이탈주민의 멘토로 활동 중이다. 최근 멘토·멘티 활동은 고독사 예방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재한 회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기에 고독사에 취약합니다. 2024년에는 대전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특히 대덕구에는 2000년대 이전에 정착한 고령 북한이탈주민이 많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결연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정착을 돕는 활동이다.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덕구협의회에서는 후원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대학과 MOU를 체결해 새로운 장학금 제도도 마련했다.

명절에는 망향제를 열어 고향을 떠난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올해 설날 망향제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강화 평화전망대 망배단이었다. 망향제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너무나 그리웠는데 이런 행사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감회를 전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 방향으로 차례를 올린 후, 평화전망대와 전등사를 둘러보고 대룡시장에서 이북 먹거리를 맛보며 향수를 달랬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나눔 봉사

지역사회 나눔 봉사 활동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김장이나 명절선물 등을 전달하는 사업과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이 관내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단순한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일환인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과 함께하는 북한료리 나눔 봉사' 행사에 대해 한경학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두부밥, 강냉이죽, 옥수수 국수 등 북한 음식을 직접 준비하여 복지시설에서 대접하는 활동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정착 후 주로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는 반응이었어요. 복지시설에서 실향민 어르신을 만나 뵐 때도 있었는데요. 똑같이 고향을 잃은 어르신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 또한 참 따뜻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다

미래세대 통일 교육은 협의회의 여러 활동을 알리고, 특히, 통일미래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다. 2024년에는 대덕대학교 국방군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사생대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사생대회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며 모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군 의장대 체험 부스 등 볼거리 할 거리도 풍부하니 많이 방문해 주세요!"

올해도 대전 대덕구협의회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분주한 그 노력이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4 '북한이탈주민 명예자문위원과 함께하는 북한료리 나눔 봉사'에서 참가자들이 두부밥을 만들고 있다.

5 '북한료리 나눔 봉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자들이 직접 끓인 떡만둣국과 함께 만든 음식을 복지관 어르신들께 배식하고 있다.

6 대덕대학교 국방군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 평화통일 시민교실'에서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7 2024년 5월 11일 개최한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대회 참가 어린이와 지역주민 400여 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8 '내가 꿈꾸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평화통일기원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한 어린이 참가자가 그림을 선보이며 웃고 있다.

MINI INTERVIEW

최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대덕구협의회장

북한이탈주민은 이 땅에서도 소외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대로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주변과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대전 대덕구협의회가 더욱 많은 접점을 만들겠습니다.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파트너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중적 지지와 이해 확산에 중점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회(위원장 조봉현, 간사 이해정)는 상임위원회 소속 9개 분과 가운데 하나로 60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남북 경제·과학·기술·자원·에너지·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경제·과학 분야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0명의 상임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서 4차례의 분기별 정책건의 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일정책에 관한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글. **이해정** 사진. **경제·과학분과위원회**

경제·과학분과위원회가 1월 15일 민주평통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15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태영호 사무처장, 경제·과학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과학분과위원회 2025년 특별활동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등에 대해 2024년을 평가하고 2025년을 전망했다.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분야는 정대진 한라대학교 교수가, 경제 분야는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성진 한국수출입은행 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난 2월 18일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과학분과위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재정립, 통일 담론 논의의 연속성과 장기적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봉현 위원장은 "북한 내부 변화 및 북한 경제 체제의 내구성과 안정성의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질서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민 대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1분기 정책 건의 및 향후 활동 방향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2월 18일 1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경제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주제로 진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는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선기 서강대 교수, 유완영 ㈜에스지아이컨설팅 회장의 지정 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봉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보환경의 大격변기에 평화통일의 길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마저작침(磨杵作針)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전념한다면 마침내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가 서겠습니다.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을 뛰면서 통일공감대를 확산시켜 큰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며 2025년의 분과위 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평화통일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특별활동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또한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2024년에는 특별활동 목표를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으로 정하고 해당 활동을 이어나갔다. 2024년 2월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I' 활동으로 탈북민 취·창업 성공사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움 끝에 취·창업에 성공한 탈북민인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 이옥화 ㈜씨케이정공 대표이사, 허영철 토목기술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경험을 청취했다. 이후 경제·과학분과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탈북민들이 취·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7월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II' 활동으로 충북 음성에 있는 탈북민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하나도가'를 방문했다. 2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했던 김성희 대표의 사업장에 경제·과학분과위원회가 찾아가서 남북하나재단, 유관기관(지자체, 의회)과 함께 사업 운영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탈북민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힘을 합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탈북민 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탈북민과 따뜻한 경제동행 II' 활동으로 탈북민 여성 창업자의 사업장인 '하나도가'를 방문했다.

미래를 바꾸는 통일 담론…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통일·안보 교육, 평화통일 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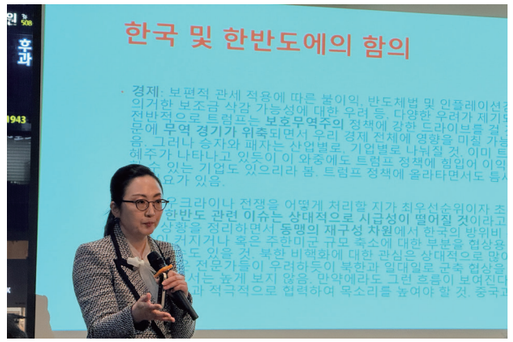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가 개최됐다.

서울지역 청년위원장들이 모여 통일과 안보 비전을 논의하고, 202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평통의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도연) 청년위원회(청년위원장 김현우)가 주최한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가 2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다. 이번 대화의 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통일 논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글. **이세원(제21기 청년자문위원 기자)** 사진. **서울강남구협의회**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안보 비전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에서 김도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위원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독일 통일 당시 청년들의 주도적 역할을 예로 들어 청년들의 미래 지향적 논의를 독려했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가 '트럼프의 귀환과 다극체제의 도래,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귀환과 한반도 정세

이날 특강에서는 임은정 공주대 교수가 '트럼프의 귀환과 다극체제의 도래,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다극체제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 비핵화 없이 통일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주도의 통일 논의와 정책 아이디어

본격적으로 서울지역 청년위원장들이 주도하는 토론회에서는 2025년 청년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속 제안되었다. 임상환 서울청년위원장은 '광복 80주년 기념 DMZ 평화의 길 80km 청년 이음 캠페인' 등 2025년 서울지역 주요 청년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우 강남구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은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이세원 서울청년위원회 간사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희생한 가치를 기리며, UN에 평화통일 의지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성윤창 이북5도지역회의 청년분과위원장은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김규동 은평구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중국 광저우 협의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본 근기협의회 김성민 위원은 일본 내 재일동포 청년들이 통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년위원회 조직을 제안하며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의 미래

태영호 사무처장은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는 청년들이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통일과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들의 열정과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2025 서울지역 청년위원장 통일대화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공유했으며, 주체적으로 통일과 한반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70년을 간직한 전우애의 기적

전장 속 약속을 지킨 황규만 장군의 마지막 소원

고(故) 황규만 장군 외손녀 정지희 씨의 회상

국립서울현충원엔 70년 세월을 넘어 나란히 잠든 두 전우가 있다. 고(故) 황규만 전 육군정보처장 (이하 '황규만 장군')과 고(故) 김수영 소위다. 6·25 전쟁에서 함께 조국 수호에 나선 인연은 오래도록 변치 않은 우정이자 감동적인 약속으로 승화해 널리 알려졌다. 황규만 장군 외손녀인 정지희 씨의 회상을 따라 그 위대하고도 숭고한 역사를 돌이켜 본다.

글. 오민영 사진. 조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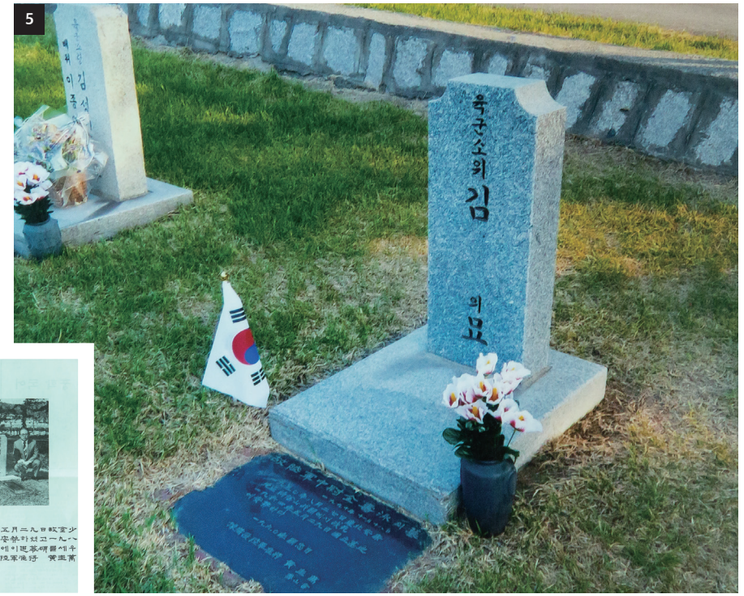
1 황규만 장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맏딸 황혜성 씨는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버지를 회고했다.

2 황규만 장군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고자 했다.

3 황규만 장군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위로 임관해 전쟁에 참전했다.

4 조선일보에 소개된 황규만 장군의 전우애 이야기

5 황규만 장군은 생전에 김 소위의 묘 옆에 묻히기를 희망했고, 2020년 6월 21일 별세하여 그의 유언대로 김수영 소위의 묘 옆에 안장됐다.



계급장마저 달지 않은 채
전장에 나섰던 전우의 자취를 찾아

지난 2020년 6월 21일, 89세의 황규만 장군이 별세했다. 미국 육군보병학교와 육군참모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육군정보처장, 대한민국 육군대학 교수부장 등을 역임한 그의 마지막 당부는 단 하나였다.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은 '육군소위 김의 묘' 옆에 묻히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두 군인이 처음 만난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생도 1기(훗날 육사 10기)로 임관한 황 장군은 갓 스무 살의 나이에 조국을 지키고자 참전했다. 1950년 8월 27일 수도사단 6연대 소속 소위였던 그가 경상북도 안강지구 도음산 384고지에서 한창 북한군과 맞서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틀 혹은 사나흘 굶기가 예사인 전장에서 숨죽이며 대치하던 중 적군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계급장마저 달지 않은 지원부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부대를 이끈 소대장이 바로 김 소위님이었다고 해요."

장군의 외손녀인 정지희 씨에 따르면, 서로 미처 통성명할 시간 없이 작전 수행에 몰두해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형 정찰을 위해 몸을 일으킨 순간, 김 소위는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곧 전사했다. 당장 현장을 떠나야 할 상황이기에 장군은 다급히 소나무 아래 그를 임시로 묻은 다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맹세하며 커다란 돌을 표식 삼았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 소위를 포함해 무려 1,500명에 이르는 청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산화한 전쟁이었다. 살아생전 황 장군은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좀처럼 그를 잊을 수 없더라고. 내가 두 손에 피를 묻혀가며 묻었는데, 그럴 수 없지.'

26년 만에 찾은 이름…
그 희생과 조국을 위해 살았던 숭고한 나날

1953년 7월 마침내 전쟁은 휴전협정을 계기로 멈췄으나 시대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황규만 장군이 1964년에 이르러서 전우를 다시 찾은 이유다. 김 소위의 유해는 그해 5월 29일 현충원으로 옮겨져 안장했으나 정작 이름을 알지 못

해 묘비엔 '육군소위 김의 묘'라고 새길 수밖에 없었다.

"김 소위님을 무명 전사자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할아버지께서 무던히 애쓰신 기간만 햇수로 26년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그분 묘에 들렀고, 동시에 정확한 성함 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정지희 씨는 드디어 1990년 '1922년생 김수영'이란 신원 파악에 성공한 장군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육군 갑종 간부 후보생 1기 동기를 수소문한 끝에 비로소 마주한 쾌거였다. 이어서 유가족까지 만나 그간 못다 전한 사연을 나눌 수 있었다.

1976년 3월 준장으로 전역한 황 장군은 1985년 전장이었던 도음산에 김 소위를 기리는 전적비를 세웠다. 아울러 조국과 국군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앞장서 활약했다. 한문과 영어, 일본어 등에 통달한 그는 좋은 책을 후학에게 널리 읽히는 차원에서 번역하기도 했다. 에르빈 롬멜이 선보인 저서 <롬멜보병전술>, 리델 하트가 쓴 <롬멜전사록>과 <현대육군의 개혁>, 아서 브라이언트의 <워 다이어리> 등 2차세계대전을 다룬 각종 서적은 대표적인 결실이다. 특히 최근 <롬멜보병전술>이 진중문고 채택의 영예를 안았다며, 밝게 웃는 정지희 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제게 대내외적으로 언어와 학문을 폭넓게 익혀 우리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배우고 싶어도 여건이 따르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평온한 일상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6 서울현충원에 있는 황규만 장군님의 요역앞에 서 있는 증손자의 모습이다.
7 1952년 미 보병학교 유학시절
8 황규만 준장은 사관생도(육사 10기) 신분으로 소대장으로서 6·25전쟁에 참가했다.
9 그는 6·25 전쟁 중 전사한 전우 김수영 소위를 결코 잊지 않았고, 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날 맞이한 자유와 평화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참 군인이자 전우애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규만 장군은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빛진 인생,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며 김수영 소위와 같이 꿈꿨던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더욱 잘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할아버지는 품에 안은 손녀가 커 가는 모든 과정과 순간에 있어 김 소위님의 희생을 떠올리신 듯했습니다. 그분을 비롯해 전장에서 목숨 바친, 수많은 군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오늘이 과연 있었을까요?"

2022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원 추념식에서 정지희 씨는 할아버지 황 장군과 김 소위의 일화를 담은 편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썼다. 이 메시지는 배우 전미도가 낭독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저는 권위에 연연하지 않은 군인이자, 늘 겸손한 자세로 연구하는 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언제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지금 느끼는 자유와 평화, 행복 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더 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야겠습니다."

황규만 장군이 외손녀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올바른 가치관'

정지희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할아버지가 생전 몸소 보여주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이어받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제 아이가 본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값질 듯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다문화 다인종으로 구성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6·25 전쟁 참전국 출신 동료 여러분에게 고국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리면서 할아버지의 따스한 전우애를 지속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절망'에서 탈북으로 찾은 '희망' 한 걸음

"평화통일은 제 삶에 주어진 사명이죠."

안성민
대전 모란봉교회 전도사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얼굴과 두 손을 덮은 화상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부 선발과 위병장 승진으로 앞날이 밝았던 군인에겐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러나 한때 그를 옭아맨 상처는 오히려 세상을 바로 보게 했고, 마침내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바로 대전대흥침례교회 안의 탈북민교회인 모란봉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안성민(39) 전도사가 걸어온 여정이다.

글. 오민영 사진. 조병우

굳게 믿었던 신념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

북한 평양시 강동군에서 출생한 안성민 씨는 출신 성분에 따라 무려 약 51개로 나뉘는 세부 계층 가운데서도 제1계급이자 상류층인 기본 군중이었다. 자연히 가정과 학교에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우상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자못 특별한 성장 과정으로 14세 무렵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부 선발 기회를 얻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1987년 11월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 사건 등을 주도한 부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3년간 집안 내력 조사, 더욱 심화한 우상화 교육, 극강의 특수훈련, 연 1회 신체검사 등을 거쳐야 했다"라고 술회한다.

그러나 10년 간의 군 복무 기간은 누구보다 공고하게 믿었던 신념이 단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시기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복무 5년 만에 위병장 승진을 거쳤을 때 발생했다. 2011년 5월 새벽 1시 내무반 건물 2층에서 전기사고로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이 출입구를 막아 모든 대원이 살기 위해 창가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불이 나면 상식적으로 인명 구조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당시 저는 우상화 교육을 받은 대로 살려달라는 대원에게 화마 속에 있는 김정일 일가 초상화부터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직접 물을 뒤집어쓰고 들어가 초상화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화마가 아른대는 현장에서 문을 열었을 때 들렸던 폭발음을 끝으로 안성민 씨는 정신을 잃었다. 훗날 들은 바에 의하면 뒤따라온 대원이 그를 내보내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고 했다.

북한을 벗어난 운명이 탈북민을 돕는 사명으로

극적으로 생존했지만, 불길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은 결국 밝은 내일을 그리던 청년의 얼굴과 두 손에 남았다. 그간의 공로로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군인증마저 무려 미화 300달러의 뇌물을 원하는 당 간부의 요구에 포기해야 했다. 안성민 씨는 "주입 받은 사상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믿기지 않았지만 외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가 목숨을 건 탈북에 나선 배경이다.

2015년 6월 드디어 도착한 대한민국에서 잠시 방황했지만, 곧 신앙의 도움을 받아 안정을 찾았다. 희망의 끈을 다시 잡고 보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남북하나재단과 한림화상재단의 탈북민 의료비 지원으로 화상 상처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3월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고 지금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 중이다. 2021년엔 결혼해 두 아이의 아버지로 단란한 가정도 꾸렸다. 대전 모란봉교회에선 사역으로 탈북민의 남한 정착과 정서적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신앙생활은 자칫 한국 사회에서 고립 상태에 머물기 쉬운 탈북민들이 폭넓게 소통할 창구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 대화 나누며 탈북 과정 중 경험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그는 대학 북한선교동아리 노스 코리아 미션(North Korea Mission, NKM)을 만들어 남북한 대학생이 함께 기도하고, 북한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탈북민 2세를 대상으로 1박 2일 통일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을 떠나올 때 저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았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온 저의 운명은 곧 평화통일을 이루는 사명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삶의 고통을 버티게 해준 '긍정'과 '끈기'

이젠 '평범' 속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탈북과 북송, 각고 끝에 밟은 한국 땅에서 치열하게 버티며 보람을 일궈낸 순간들. 먼 길 돌아 도착한 대한민국에서 남북을 잇는 연구로 통일한국을 꿈꾸고 있는 조현정 박사를 만났다.

글. **구지회** 사진. **조인기**

처음 만난 대한민국

조현정 박사는 1997년,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던 중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처음 알게 됐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는데, 중국에서 한국 미디어를 접하며 '저곳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깨달았죠."

그때쯤 조현정 박사의 전부였던 외할머니가 북한에서 기아로 돌아가셨다. "아픈 어머니 대신 젖동냥으로 키워주신 분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의 저라는 존재를 만든 분이죠. 할머니에게 이밥(쌀밥)에 고깃국 대접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걸 못해 드렸어요."

북한에 돌아갈 이유가 사라지자, 조현정 박사는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물정 모르는 채 동남아와 중국 국경을 떠돌다가 결국 북송되고 만다. 포기하지 않은 조현정 박사는 보위부 구류장에서 출소한 후 다시 향한 중국에서 브로커를 구해 2003년,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다다랐다.

긍정과 끈기로 대한민국에 터를 잡다

도착한 한국에서 조현정 박사는 빠르게 적응했다.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어요.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자본주의와 현대적인 대도시를 경험하기도 했고, 드라마 속 화려한 삶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는 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착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보험 영업 일을 구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계약 따기가 어려웠고, 월급이 적으니,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부업도 병행해야 했다. 사투리를 고치는 일도 큰 난관이었다. "젓가락을 물고 신문 읽는 연습은 기본이었고, 아나운서 스피치학원에 등록해 발음 교정도 받았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건 긍정과 끈기였다. "'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팔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못해낼 일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지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언정 빚은 없으니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보험 영업을 은퇴할 때는 월 800만 원 수입을 달성할 수 있었다.

북한, 통일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이 되다

공부하는 삶을 시작한 건 한국에 도착한 지 5년째가 되던 해의 일이다. "'부자'라는 목표가 문득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인지, 그 기준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못다 한 공부가 생각났다. 대학에 진학했고, 그 길이 북한 교육 연구로 이어졌다.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교육학 학사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제가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고 북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로서 북한을 연구하는 강점을 조현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남한에서 성장한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어는 그 나라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연구와 이론 공부를 통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항시 노력하고 있는 조현정 박사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 속 그리는 미래

요즘 조현정 박사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들과 보내는 일상이다. "사실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북한을 떠난 이후에는 줄곧 중국과 동남아를 떠도느라, 한국에서는 돈 벌고 공부하느라 세심하게 돌봐주지를 못했으니까요. 최근 아들이 취업하고 중고차 한 대를 샀는데, '엄마, 모시러 갈까요? 엄마,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전화 걸곤 해요. 그런 순간들이 참 소중하죠.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 같아요."

어렵게 일군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에서 조현정 박사는 이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통일이 된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조현정 박사의 발걸음을 따라 자분자분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

커피로 변하는 북한, 부유층 문화를 넘어선 변화의 징후

커피 한 잔으로 본 북한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북한 평양에서 커피 문화가 확산한 지 이미 오래다. 외국인을 위한 호텔 내 커피숍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 등장했다. 초기 커피숍에서는 외화로만 결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커피숍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커피 문화는 점차 일반 대중으로 확산했고, 앞으로도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글. 편집실

과거 상류층의 사치품이었던 커피가 평양을 넘어 지방 도시로 확산하며 다양한 커피숍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의 커피 문화, 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커피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대까지 연평균 60kg에도 미치지 않던 커피 수입량이 200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1만 9천 포대 이상으로 증가하며 커피 문화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은 북한 주민들에게 커피를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초기에는 커피믹스가 주로 소비됐고, 점차 커피숍과 외국산 커피가 유입됐다. 또한, 북한 내 고위층은 커피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삼아 그 소비를 확대했다. 커피는 특히 부유층과 간부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음료로 자리 잡았다. 국제적인 경제 교류 확대는 외국산 커피의 유입을 촉진했으며, 북한 사회에서 커피는 서구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북한 내 커피 소비의 확대와 다양화를 이끌었다.

북한, 커피 문화 확산의 이면 자본주의를 넘어 평양에서 지방까지

북한에서 커피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 커피는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의 커피 소비는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됐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커피숍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커피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고위층만의 소비 품목이 아닌, 일반 주민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커피믹스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며, 설탕과 크리머가 함께 포함된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외국산 원두를 사용하는 고급 커피는 여전히 부유층과 간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커피숍에서는 최신 커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커피 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산 원두를 사용한 드립 커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커피가 등장하며, 북한 주민들의 커피 소비 방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고급 커피의 인기, 외국산 원두 선호와 가격의 차이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커피는 주로 외국산 원두로, 브라질, 한국산 커피가 주를 이룬다. 일부 고위층은 손님 접대 시 커피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형성했다. 이러한 커피 소비는 '자본주의적인 향'을 즐기는 부유층과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 내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화로 판매되는 고급 커피의 가격은 최고 5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평균 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외화 커피는 부유층의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다.

특히 북한 평양에서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단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스타벅스의 커피 원두로 제조한 이름만 '스타벅스 커피'라는 메뉴로, 고급스러움과 서구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모습은 북한 내 서구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커피 소비, 북한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신호탄?

북한의 커피 소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커피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세련된 생활방식'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왜 쓴 물을 돈 주고 사 마시냐"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 커피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여겨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향후 북한의 커피 시장은 원두 가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커피 소비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지방 도시에서도 점차 커피 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북한에서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출처

- 양성원, 북 지방 간부들 커피 마시기 유행, 자유아시아방송, 2024.04.1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ffee-04092024094135.html
- 표은지, 북한에 웬 스타벅스 커피가 있다고?!, 통일부 블로그, 2023.04.06.,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3065288776
- 북한의 커피문화, KBS World, 2023.11.22.,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northkorea&id=&board_seq=446810&page=1&board_code=
- 강혜련, 북한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마시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로그, 2019.2.26., https://m.blog.naver.com/nuacmail/221475056768

‘슴슴’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평양냉면의 남한 정착기

다양한 브랜드와 트렌드로 남한에서 꽃피우다

남한에서 자리 잡은 평양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역사와 문화, 이산의 아픔이 담긴 특별한 존재다. 6·25 전쟁으로 남하한 실향민들에 의해 전해진 이 음식은 남한에서 변형과 발전을 거듭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됐다. 이제는 남북을 잇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평양냉면. 그 깊은 맛 속에는 한반도의 지난 역사와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다.

글. **편집실**

평양냉면의 기원과 전통

평양냉면은 조선시대부터 평양 지역에서 겨울철에 먹던 음식이었다. 주재료인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었고, 이에 메밀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가 자리 잡았다. 초기의 평양냉면은 육수 없이 비빔 형태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평양냉면의 가장 큰 특징은 육수와 면에 있다. 소뼈와 돼지뼈, 닭고기 등을 고아 만든 담백한 육수는 한층 깊은 맛을 내며, 메밀 함량이 높은 면은 거친 듯하면서도 부드럽다. 과거에는 동치미 국물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고명으로는 삶은 고기와 오이, 배 등을 올려 단순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을 완성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전쟁을 피해 남하한 수많은 피난민 가운데 평양 출신의 요리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남한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만들어 팔았고, 그중 하나가 평양냉면이었다. 전쟁 직후 남한에서 냉면은 귀한 음식이었다. 당시 남한은 전쟁으로 인해 식량난이 극심했고, 메밀과 같은 곡물은 물론 기본적인 식재료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메밀이 귀한 상황에서 감자 전분을 섞어 면을 만들었고, 육수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고기 육수를 기본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평양냉면은 서서히 남한의 입맛에 맞춰 변형되었다.

남한에서 자리 잡은 평양냉면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평양냉면 육수를 재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동치미 국물보다는 소고기 육수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정착되었다. 또한 메밀보다 감자 전분 비율이 높은 면이 사용되며 쫄깃한 식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서울식 냉면은 평양냉면과 달리 육수가 짜고 달며, 고명으로 삶은 달걀과 고추기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50년대 이후 남한에서 냉면이 보편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 후 부족한 식재료를 보완하기 위해 감자 전분을 이용한 면이 개발되었고, 남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육수는 간장과 설탕을 가미해 더욱 진하고 강한 맛을 띠게 되었다. 이후 서울 지역의 식당들이 냉면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서울식 냉면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한 사람들의 강한 맛 선호 경향과 맞물려 발전하게 되었다.

평양냉면의 대중화와 현대적 변화

1980년대 이후 평양냉면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평양냉면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이 등장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평양냉면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평양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남북 화합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남한에서는 평양냉면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며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평양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현재 남한에는 정통 평양냉면을 표방하는 다양한 전문점이 있으며,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냉면집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기존의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미한 현대적 평양냉면이 진화해 맛은 더욱더 특별해지고 풍미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탈북민이 운영하는 평양냉면 전문점

평천면옥(경기도 평택시)
평양 출신의 이윤선 대표가 운영하는 정통 평양냉면 전문점. 이 대표는 평양 통일거리에서 냉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옥류관 주방장에게 육수와 면 제조 비법을 전수받음.

양각도(경기도 고양시)
북한 국영 식당의 총주방장을 역임한 조리장이 운영하는 평양냉면 전문점. 메밀 함량 80%의 면과 소·돼지·닭 육수를 사용한 깊은 맛의 육수가 특징

설눈(서울시 서초구)
1977년부터 북한에서 평양냉면집을 운영하던 대표가 한국으로 와서 개업한 곳으로, 평양 고려호텔의 레시피를 재현한 ‘고려 물냉면’을 제공하고, 계피 향이 도는 국물과 메밀 향이 강한 쫄깃한 면발이 특징

동무밥상(경기도 고양시)
북한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따뜻한 들깨죽을 식전으로 제공하며, 사태 수육이 올라간 평양냉면이 인기 메뉴

영화 <하얼빈> 속 역사 재현의 양상

하얼빈에서 피어난 혁명: 안중근과 동지들의 외침

해방 후 남한에서 개봉된 첫 번째 극영화인 <의사 안중근>(이구영 감독, 1946)을 필두로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전창근 감독, 1946), <의사 안중근>(주동진 감독, 1972), <도마 안중근>(서세원 감독, 2004)에 이르기까지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다룬 영화의 타이틀에는 하나같이 그의 이름이 삽입되어 있다. 심지어는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엄길선 감독, 1979)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났다. 이들 작품은 공통으로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사건을 전후한 안중근 의사의 전기(傳記)적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뮤지컬 영화 <영웅>(윤제균 감독, 2022)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글. 함충범(한국영상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사진. TMDB 제공

'안중근 전기'로부터 탈피한 구한말 독립투쟁의 서사

그리고 2024년 12월 24일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이 개봉됐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된 실제 사건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또 한 편의 '안중근 영화'로 일컬어질 만하다. 그러나 제목 자체에 반영되어 있듯, <하얼빈>의 경우 안중근을 다룬 기존의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이야기 구조를 채택한다. '의사 안중근'이 아닌 '장군 안중근'을 묘사하려 했다는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이 작품에서도 안중근(현빈 분)이 주인공으로는 등장하지만 그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빈번히 클라이맥스를 장식해 온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장면은 매우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그의 재판 장면은 아예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영화는 우덕순(박정민 분) 및 김상현(정우진 분), 이창섭(이동욱 분) 등 대한의군 참모중장인 안중근의 동지들과 최재형(유재명 분)이나 공 부인(전여빈 분) 등의 조력자를 통해 구한말 한반도 북방과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투쟁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가미된 허구성을 상쇄시키는 극사실적 영상 화면

그렇다고 <하얼빈> 속 독립투쟁의 서사가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주요 배역 가운데 김상현, 이창섭, 공 부인, 그리고 모리 다쓰오(박훈 분) 등은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캐릭터에 해당한다. 이들은 극 중에서 안중근과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한 채 강경파 동료(이창섭), 한때의 밀정(김상현), 여성 조력자(공 부인), 반인도적 성향의 일본군 장교(모리 다쓰오) 등으로 등장하며 그가 거사(巨事)를 치르는 데 공조 또는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나, 서사적 개연성 및 역사적 고증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한다.

이에 영화는 영상 화면에 극도의 사실성을 가함으로써 가상의 인물형과 가공적 사건들에 의해 가미된 작품의 허구성을 상쇄시킨다. 살육으로 얼룩진 잔인한 전투 장면의 노골적인 묘사, 명암의 대비를 통한 그로테스크적인 입체감의 창출, 스테디캠이나 드론 장비를 활용한 시계(視界)의 다각화, 국내뿐 아니라 몽골, 라트비아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에 따른 현장감의 확보 등은 이를 위해 취해진 표현 기법상의 전략 및 그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토 히로부미 역을 일본의 유명 배우 릴리 프랭키(Lily Franky, 中川雅也)가 연기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하얼빈>에서는 국권 침탈 직전의 암울한 시대상과 한반도 이북 지역의 혹독한 맹추위, 의병 대원들이 처한 열악한 주변 환경 등이 공감각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이로써, 영웅적인 모습에 가려져 온 안중근의 인간적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영화의 시사점, 그리고 시대적 함의

영화의 특징은 1909년 1월 17일 러시아 연추를 배경으로 한 대한의군 회의 장면으로 구성된 첫 부분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안중근은 40일 전 함경북도 경흥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국공법'에 따라 모리 다쓰오를 포함한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했는데, 그들의 역습으로 부대원들 대부분을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아 귀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안중근은 이창섭을 위시한 동료들에게 강하게 비판받는데,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되 반격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다. 이후에도 국권 회복과 동양 평화를 향한 안중근의 굳은 신념과 의지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만한 고뇌와 불안감, 지침과 나약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된다. 끝에 이르러서는 1910년 3월 26일 여순감옥에서 교수형 집행을 앞두고 긴장과 공포를 느끼는 안중근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화면에 전시되기도 한다.

주목되는 점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모리 다쓰오를 처단하고 밀정의 굴레를 벗어던진 뒤 우덕순, 공 부인과 길을 떠나는 김상현의 자태가 마지막을 수놓는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영화는 영웅적 위인으로 남아 있는 안중근이라는 실존 인물과 범인(凡人)을 대변하듯 일제의 탄압과 유혹에 굴복하기도 한 가상의 인물 김상현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간다. 더불어 '첩보 블록버스터'나 '심리 스릴러' 등에서의 장르적 연출 방식을 결합하면서 <하얼빈>은 490만여 명의 관객 동원 수를 기록하게 됐다.

<하얼빈>의 감독 우민호는 <남산의 부장들>(2020)을,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서울의 봄>(2023)을 만들어 대중성과 작품성 양면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두 영화 모두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10.26 사건)'을 다뤘다는 사실이다.

안중근의 거사가 행해진 하얼빈(哈爾濱)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만큼 많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기는 했으나, 영화 <하얼빈>은 특정한 영웅적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논쟁과 대립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116년 전 안중근을 비롯한 대한의군 대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1 전북 전주시협의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설맞이 평양통일떡국 나눔 행사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하재관)는 1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에서 '설맞이 평양통일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훈단체협의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설 대표 음식인 떡만둣국을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재관 협의회장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북한이탈주민과 보훈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지역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떡국 만들기 체험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식문화를 공유하고, 명절 음식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는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협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경기 광주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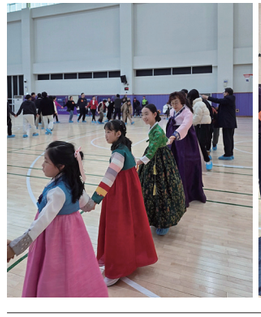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나눔 행사 개최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이상원)는 1월 18일, 남한산성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20여 명과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떡과 만두 만들기 △떡국 나누기 △윷놀이 등을 함께하며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북한식 떡 만들기를 진행하며 추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골 떡국 선물세트와 강정 등 명절 선물을 전달했으며, 아이들은 단체 세배를 올려 세뱃돈을 받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광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 허명희 씨는 "북한 떡 만들기를 통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하루빨리 통일되어 가족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3 대전 서구협의회

2025 정월대보름맞이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성황리 개최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이창종)는 2월 8일,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2025 정월대보름맞이 통일기원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서구협의회 드림&걸즈의 퍼포먼스로 시작됐고, 개회식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이 펼쳐져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장이 됐다.
이창종 협의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안녕과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민속음악 공연과 장기자랑이 이어졌고, 북한이탈주민 공연단의 노래와 자문위원, 어린이들의 댄스타임도 진행되어 세대를 초월한 어울림의 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오곡밥과 나물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식사 시간을 가졌고, 행사 끝에는 강강술래와 대문열기 놀이로 모두 하나 되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겼다.



4 울산 남구협의회

멘토&멘티 문화탐방 "평화통일 가족 해보리" 성료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장수철)는 2월 8일~9일, 경남 남해 일원에서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 '평화통일 가족 해보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역사 탐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사천 바다케이블카에서 남해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탐방 일정 중에는 멘토-멘티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시간이 마련됐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멘토링 발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노력과 경험을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이웃사촌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평화통일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장수철 협의회장은 "이번 문화탐방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5 경기 안산시협의회

2025년 정월대보름 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愛 나눔 행사 개최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김기백)는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무지개봉사단, 대한불교회 연암사 등 지역사회 단체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부럼 깨기, 오곡밥 나누기 등 정월대보름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화합을 다졌다. 또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을 찾아가 정월대보름 음식을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넘어 안산시 청소년 쉼터에도 정월대보름 음식을 전달해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형성에도 이바지했다.

김기백 협의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전통문화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 충북 단양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경주 문화탐방 진행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이완영)는 3월 9일, 자문위원 및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등 28명이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추억의 박물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경주 역사유적지구를 둘러보며 신라의 고대 문화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970~80년대 생활용품과 유물을 전시한 ‘추억의 박물관’으로 이동해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보며 향수를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탈북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양군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탐방 및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7 샌프란시스코협의회

2025년 신년하례식 및 통일포럼 개최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최점균)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엘크스 랏지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신년하례식 및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과 내외 귀빈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점균 협의회장의 신년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통일포럼에서는 ‘통일한반도를 위한 해외지역의 역할’과 ‘미국 서부지역의 애국운동 현장 탐방과 애국정신 국내 확산’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미주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약과 애국정신을 국내로 확산시킬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행사 중 주니어평통 회원 임명식이 진행되어 5명의 학생에게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이들은 차세대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건배사와 만찬이 이어졌으며, 케빈 박 산타클라라 시의원은 민간외교와 민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점균 협의회장은 샌프란시스코협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자문회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8 중동협의회 사우디아라비아지회

‘Flavors of Nations’ 행사 개최

중동협의회(회장 현봉철) 사우디아라비아지회(지회장 김정운)는 2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KAUST)에서 ‘Flavors of Nations’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KAUST 한국인 커뮤니티, 젯다 한인회, 젯다 한국학교, 젯다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120개국 이상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 전통 놀이인 딱지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놀이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부스도 운영되어 김치, 떡, 비빔밥 등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전달했다.

‘Flavors of Nations’ 행사는 한국인 커뮤니티와 다른 국적의 참석자들 간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 전통놀이와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의 소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9

호주협의회 멜번지회

남북음식과 함께하는 통일 기원 한마당 개최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 멜번지회(지회장 김경운)는 2월 14일, 빅토리아주 한인노인회관에서 '남북음식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그리운 내 고향음식 이야기로 참가자들과 추억을 공유했다. 이북5도민회 오영열 대표는 고향인 평양과 평양냉면 등의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나눴고, 빅토리아주 한인노인회 백봉남 명예회장은 고향인 평안북도 의주 이야기와 자신이 좋아하는 녹두지짐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한반도 '평화의 지도판'에 붙여나가면서 한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다음은 연변 출신인 박인선 교민의 남한식·북한식 인절미 시연이 있었다. 같은 주재료로 만들되 모양이 서로 다르고, 남한식은 콩고물, 북한식은 팥고물을 입힌다는 설명과 시연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진 통일퀴즈쇼, 색소폰 연주, 대보름 특별오찬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0

애틀랜타협의회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 K-문화마당' 행사 성료

애틀랜타협의회(회장 오영록)는 2월 23일,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평화통일 구현과 염원을 위한 대한민국 K-문화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줬던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K-문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등 전통 놀이에 참여했다. 각 놀이 후 스탬프를 받고 떡을 선물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북한 사진전이 함께 열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한글 캘리그라피 부스와 K-푸드 시식 부스에서 참가자들이 K-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K-문화 체험 후에는 태권도 시범이 진행됐고, 끝으로 청소년 태권도 Demo Team의 멋진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현지인과 동포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졌으며,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1

동남아남부협의회

인도네시아 3·1절 행사, 독립유공자 후손 연설 및 행사 개최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이세호)는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제106주년 3·1절 행사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태립 자문위원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연설을 맡아,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최 위원은 연설에서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독립의 가치를 잊지 않고, 후손들이 이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 위원의 연설에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인 사회의 단결을 다짐했다.

이세호 회장을 포함하여 모든 참석자는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한인 사회의 단합과 한-인니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되었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에게 조국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12

남유럽협의회 그리스 분회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 기원 연날리기' 행사 개최

남유럽협의회(회장 박천욱) 그리스 분회(분회장 류학현)는 3월 1일과 2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 기원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 학생들과 현지 한인들이 함께 참여해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일에는 한글학교에서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삼일절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비폭력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음을 학습하며, 한반도의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이후 학생들은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연에 작성한 뒤, 하늘 높이 날려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일에는 한글학교 학생과 한인 청소년, 교민들도 함께 참여해 연을 날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참가자들은 연을 통해 북녘 하늘까지 염원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며,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인 사회의 소망을 담아 성료됐으며, 참가자들은 삼일절 정신을 되새기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통과 함께하는 이벤트

『평화통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보는 즐거움, 아는 즐거움과 함께 『평화통일』에는 참여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평화통일』인의 생활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독자 여러분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화통일』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평통 한 컷

eliana0524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시 민주평통이 보통리 저수지
정화운동에 참여했습니다~

papoose

성동구협의회 화이팅!!
하나된 멘토-멘티 화이팅!!
올해도 함께해요

'평화통일'을 멋지게 장식할 '평통 한 컷'을 찾습니다.
최근 1~2개월 내 촬영한 사진에 #평통한컷 태그를 달아 SNS에 올려주세요.
매달 두 분을 뽑아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13호 독자퀴즈 정답

① 가면을 벗긴다
② 황푸 군관

당첨자 명단

김대현(울산시 동구) / **이희정**(충남 금산군)
김동석(서울시 동대문구) / **장우익**(강원도 동해시)
김은경(서울시 동대문구)

평통 우체통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Reader's Voice

1+2월호를 읽고

[사회 통합] **김대현**
2030세대 '통일 공공외교의 길'을 찾다 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해외협의회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세대의 공공외교가 대한민국의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온 이웃] **이희정**
전국 각 지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만든 김치를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행사 소식이 좋았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동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탈북민 정착 이야기] **김동석**
압록강을 건너온 북한 소녀가 이제는 웹툰 창작자가 되어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흐뭇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는 전주옥 이쁨스튜디오 대표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북한 리얼 스토리] **장우익**
김중근 전 인도대사가 쓴 소설 <가면을 벗긴다>를 읽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통일의 길목에 작은 벽돌을 놓고자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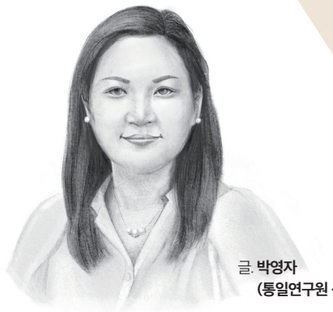
[함께 여는 통일] **김은경**
'제7회 전국 청소년 평화통일 랩 경연대회'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랩으로 전하는 재치와 감동, 끼 넘치는 통일 메시지가 저 멀리 북녘땅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평화통일』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이메일
(puac1981@naver.com)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마감 기한: 2025년 4월 18일까지

매 호 다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남한보다 국력이 약한 북한, 어떻게 남북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가?



글.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현재까지 남북한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동맹을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보다 최소한 경제사회적 국력이 월등히 미약한 상황에서 남북한 경쟁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이다. 그렇다면, 국력의 차이가 큰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가? 세계적으로 '비대칭적 국력을 가진 국가들 간 경쟁'을 연구한 드레이어(David R. Dreyer 2014)는 강대국과의 동맹과 핵무기 외에 여러 요인을 주목한다. 이중 남북 경쟁에 함의가 높은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더 강한 국가의 다른 라이벌의 선점이다. 더 강한 국가에 다른 라이벌이 생기면 전력이 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와의 힘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의 적대성이 커지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둘째, 분쟁 중인 이슈와 관련한 힘의 동등성이다. 주요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하여 상대적 동등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면, 국제적으로 6·25전쟁 종결 시 국제연합군을 대표하는 미국, 참전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1953.7.27.) 당사자로 참여한 북한이 한국보다 분쟁 중인 이슈 관련 주도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약한 국가의 결의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에 비해 약한 국가의 결사의지가 크다면 힘의 동등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일상적으로 군대와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약한 국가의 뛰어난 군사 전술이다. 전력이 다소 약하더라도 뛰어난 군사 전술을 활용하면 전쟁 또는 군사 대립 시 우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전력이 더 강한 국가에 대한 군사 전술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김정은 정권이 대남 우월성 입증과 대남 위협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대남 전술핵 전략이나 산악지대와 지하를 활용한 '게릴라 전술'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상 등이다.

다섯째, 약한 국가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다. 약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와의 라이벌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한다. 이를 통해 힘의 동등성을 이루려는 것이다.

여섯째, 약한 국가의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이다. 약한 국가는 라이벌인 상대 국가가 '자신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따라 약한 국가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전/도발을 강한 국가보다 더 자주 실행한다. 북한의 대남·대외 도발의 양상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째, 시간에 따른 힘의 변동이다. 어떠한 권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권력 변동이 반드시 경쟁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고도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경쟁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힘의 동등성과 관련한 특징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모두 독재정권일지라도 남북관계는 각 정권에 따라 일정한 변동을 보여 왔고, 남북한 힘의 동등성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을 숙고하면 북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적대성 고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과제에 보편적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채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다양한 채널을 소개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기관지 『평화통일』은 다양한 채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오디오 E-BOOK 바로가기

『평화통일』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민주평통 채널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